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연쇄창업가 지원방안 연구

Towards the Virtuous Circle in Start-up Ecosystem
through Supporting Serial Entrepreneur

2015. 11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46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연쇄창업가 지원방안 연구

(Towards the Virtuous Circle in Start-up Ecosystem
through Supporting Serial Entrepreneur)

조유리/고동환/정원준

2015. 11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연쇄창업가 지원방
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조 유리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고 동 환 부연구위원

정 원 준 연 구 원

목 차

요약문	ix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창업생태계에서 연쇄창업가의 역할과 지원정책 현황	6
제 1 절 연쇄창업가의 개념 및 역할	7
제 2 절 연쇄창업가 성공사례 및 재창업 관련 현황	9
1. 국내외 연쇄창업가 성공사례	9
2. 실패기업(인) 및 재창업 관련 현황	11
제 3 절 연쇄창업가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15
1. 제도전·재창업 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	16
2. 재투자 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	21
제 3 장 국내 연쇄창업 실증분석	23
제 1 절 기존문헌연구	23
제 2 절 ICT 벤처기업 설문조사 분석	28
1. 연쇄창업의 특성	30
2. 연쇄창업의 성과분석	41
3. 소결	48
제 3 절 한국노동패널 분석	50
1. 한국노동패널 자료 및 변수 설명	51
2. 연쇄창업의 결정과 성과	55
3. 소결	65
제 4 장 델파이분석을 통한 연쇄창업가 지원 정책 방안 도출	67

제 1 절 델파이 분석 설계	67
제 2 절 델파이 분석 결과	73
제 3 절 연쇄창업 지원 정책 방안	80
제 5 장 결 론	84
참고문헌	91
[부록 1] 〈표 3-18〉의 도구변수 회귀분석에서 일단계 추정 결과	95
[부록 2] 델파이 1차 설문지	97
[부록 3] 델파이 2차 설문지	104

표 목 차

〈표 1-1〉 우리나라 벤처정책 연혁	2
〈표 2-1〉 국내 대표적인 연쇄창업가 성공사례	11
〈표 2-2〉 폐업의 주된 이유	13
〈표 2-3〉 폐업시 연대보증	13
〈표 2-4〉 재창업년도 기준 재창업 기업 수 및 재창업까지 기간	14
〈표 2-5〉 146개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 및 내용	15
〈표 2-6〉 재도전 관련 주요 정책추진 현황	20
〈표 3-1〉 설문조사 응답기업 업종 및 창업년도	29
〈표 3-2〉 설문조사 세부 항목	30
〈표 3-3〉 신진 및 연쇄창업 간 창업특성 비교	31
〈표 3-4〉 신진 및 연쇄창업 간 경영 및 재무특성 비교	34
〈표 3-5〉 신진 및 연쇄창업 간 혁신활동 비교	37
〈표 3-6〉 신진 및 연쇄창업 간 협력활동 비교	39
〈표 3-7〉 신진 및 연쇄창업 간 입지선택 비교	40
〈표 3-8〉 신진 및 연쇄창업 간 정부지원 비교	41
〈표 3-9〉 설문조사 회귀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43
〈표 3-10〉 연쇄창업의 재무적 성과 분석-당기순이익 단순회귀분석 추정결과	44
〈표 3-11〉 연쇄창업의 기술적 성과 분석-특허출원수 음이향회귀분석 추정결과	46
〈표 3-12〉 연쇄창업의 설문분석 결과 요약	48
〈표 3-13〉 노동패널 회귀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55
〈표 3-14〉 연쇄창업 결정요인 로짓모형 추정결과	57
〈표 3-15〉 연쇄창업 성과 단순회귀분석(OLS) 추정결과	59
〈표 3-16〉 연쇄창업 결정요인 조건부로짓모형 추정결과	60
〈표 3-17〉 연쇄창업 성과 고정효과 회귀분석(fixed-effect OLS) 추정결과	62

〈표 3-18〉 연쇄창업 성과 도구변수 회귀분석(IV OLS) 추정결과	64
〈표 4-1〉 전문가 델파이 2차 설문조사 세부 항목	70
〈표 4-2〉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은 연쇄창업 지원 정책 방안	82

그림 목 차

[그림 1-1] 벤처확인제도에 따른 벤처기업 수 추이	1
[그림 2-1] 중소기업의 재도전 지원제도의 단계별 분류	16
[그림 4-1] 연쇄창업가의 특징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5점 척도)	74
[그림 4-2] 연쇄창업가의 창업생태계 역할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5점 척도)	75
[그림 4-3]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5점 척도)	77
[그림 4-4] 연쇄창업 지원 정책 방안의 중요성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 (5점 척도)	78
[그림 4-5] 연쇄창업 지원 정책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 (5점 척도)	79

요 약 문

국내 벤처기업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9월 기준 30,464개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그 수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국내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초기 벤처에서 크게 성장한 벤처기업도 속속 등장하여 매출 천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이 454개에 이르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74%, ‘히든챔피언’ 기업의 67.5%, ‘히든 스타 500’ 기업의 68.5%가 벤처기업이다. 이러한 벤처 성장 뒤에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계속되어온 정부 정책의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 1997년 벤처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창업관점의 중소기업정책이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정책자금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모태펀드 등을 통해 집중공급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시장친화적인 벤처생태계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 협력하고, 인력의 공급과 이동이 자유로우며, 창업 및 투자 자금이 선순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등록되는 비율은 5% 미만이고, 엔젤투자는 2013년 471억원에 불과하다. 벤처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여도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건수가 저조하여 자금의 선순환이 어렵다. 외부와 기술, 자금, 판로개척 등의 면에서 다른 창업가나 벤처캐피탈 등과 협력하는 벤처기업도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직 민간 주도의 활기찬 벤처생태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경험있는 창업가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들이 다시 창업하거나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 혹은 창업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지식이 순환할 수 있다. 연쇄창업가(serial entrepreneurs)라고 불리는 이들 경험있는 창업가들은 기업운영 노하우, 산업의 이해, 외부 인적 네트워크 확보 등에서 경험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공적인 회수를 통해 투자여력이 있다. 또한, 기술형 창업

이라는 흔치 않은 경험을 겪은 소수의 사람들로서 벤처생태계에 대한 애착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연쇄창업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사업에 실패했을 때의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연쇄창업가가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연쇄창업은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지, 연쇄창업가의 성과는 어떠한지, 연쇄창업가가 기대만큼 창업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국내 연쇄창업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연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적은 관계로 국내 연쇄창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계량분석을 통한 정밀 분석과 개략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탐색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서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ICT 분야의 벤처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혁신형 창업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첫 번째로, 실증적인 자료 기반으로 연쇄창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실증자료로는 ICT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얻어진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다년간 수집한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를 통해 연쇄창업가가 신진창업과 다른 경영행태를 보인다는 것과 연쇄창업이 어떤 상황에서 더 우수한 경영성적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검증되기 어려웠던 창업경험의 효과를 실증자료에 기반하여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연쇄창업가의 특징, 역할, 연쇄창업의 문제점과 정부지원 방향에 대하여 탐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분석을 통해 연쇄창업과 관련한 일반현황을 정성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연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특히 다양한 정책아이템을 도출한 후 각 정책방안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정부가 실행가능한 정책 위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실패기업인들의 재기지원에 머물러 있던 정책방향에서 탈피하여 창업교육단계에서의 접근, 성공한 연쇄창업가들의 멘토 역할 강화와 같은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적 관점에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연쇄창업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창업생태

계에서의 역할, 성공사례와 실패통계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연쇄창업과 관련한 최근의 정부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정부지원이 실패기업인의 재기 및 재도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쇄창업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 국내의 재창업 관련 조사를 살펴보면, 2014년 KAIST 기업가정신센터는 폐업기업 82,154개를 분석한 결과, 폐업 전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창업한 경우는 14,952개로 전체 폐업기업 가운데 18.2%를 기록했다. 폐업기업의 대표가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재창업한 5,904개 기업 중 1,276개사(21.6%)는 재폐업하는 악순환을 보였다. 또한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해가 지날수록 재창업하는 기업 수는 늘어났지만, 재창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쇄창업 활성화에 유인을 제공하는 ‘재도전 지원제도’와 ‘재투자 지원제도’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연대보증 면제 확대, 체납 및 채무감면 지원, 자금지원, 회생절차 완화, 인프라 조성 등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쇄창업가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은 재투자 지원보다는 재도전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재투자 지원제도의 경우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80%이상을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제도 이외에는 적절한 지원시책이 없는 상황이다.

제3장은 국내 연쇄창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제시한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창업초기의 ICT 벤처기업을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쇄창업의 현황, 신진창업과의 경영행태 차이, 성과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총 300개 표본 중에서 창업자가 이전에 창업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56개로 약 18.67%의 벤처기업이 연쇄창업인 것으로 나타나 KAIST의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해외의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창업활동년수는 평균적으로 약 8년이었으며, 연쇄창업 중 약 80%는 같은 업종에서 재창업하였으나 나머지 20%는 업종을 변경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을 통해 연쇄창업기업과 신진창업기업의 경영행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쇄창업은 신진창업보다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공동창업하는 비중이 높고, 더 큰 규모로 시장에 진입하며,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또한, 대량생산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경영전략을 신진창업보다 더 중요시하며, 개인소비자 매출 비중이 더 높고,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전략행태를 보인다. 창업자가 가진 지분 비율이 연쇄창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활동의 장애요인이 내부역량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협력상대로는 공급업체, 수요업체의 비중이 신진창업보다 더 높고 정부의 비율은 더 낮았다. 입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원자재 근접성, 공동연구 가능성, 혁신문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더 높았으며, 정부로부터 자금지원 비중은 신진창업보다 낮았지만, 판로와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더 높았다.

연쇄창업이 ICT 벤처기업의 초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적 성과(설립 첫째 당기순이익)와 기술적 성과(특허 등록수)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쇄창업 자체는 벤처기업의 초기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기 기술성과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쇄창업하면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재무성과가 하락하였으며, 연쇄창업시에 여러 명이 공동창업하는 경우에 재무성과가 상승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영행태 및 성과와 관련된 결과를 종합하면, 연쇄창업의 경우에는 기술보다 시장과 수익에 더 중점을 두어 창업한다고 볼 수 있다. 큰 자산규모로 시장에 진입하고, 주력시장을 확대하며, 대량생산 전략을 취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보다 판로개척 면에서 지원을 받는 등 시장성 위주의 경영전략행태를 보인다. 이에 따라 연쇄창업은 특허와 같은 기술적 성과보다는 재무적 성과에 더 큰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여러 명이 공동창업하고, 창업자 지분을 높이며, 내부 역량에 집중할 뿐 아니라 정부협력은 줄이되 원자재 공급업체, 수요업체 등 공급망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지난 창업 경험을 통해 의견조율, 내외부 조직관리 면에서 경영역량을 향상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쇄창업가는 축적된 경영역량을 활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이는 공동창업으로 이어지며 재무성과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기존 경험과 노하우는 특정 영역에 한정하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쇄창업이 성과를 보이기 어렵다.

설문조사를 통해 연쇄창업의 특징과 성과를 살펴보았으나, 일회성 설문조사는 내생성 문제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쇄창업에서의 내생성 문제는 창업자의 자기선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경영역량을 타고난 개인이 창업을 반복하면서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 경험효과와 자기선택효과를 일회성 단면조사로는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연쇄창업이

경험누적을 통한 성장과정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일 뿐이라면, 사업경험을 벤처생태계에 자산화하고 순환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당위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창업경험이 개인의 자기선택효과보다 유의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실증분석으로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쇄창업의 결정요인과 성과가 과거 사업가의 창업 경험에 영향을 받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사업 경험을 반영하는 변수들로는 과거 사업 기간 중의 평균소득, 사업가로서 경력 유지 기간, 그리고 창업경험수를 설정하였다. 자영업 외의 취업자나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자로의 진입을 창업이라고 보고 과거에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재창업이라 규정하였다. 자영업을 계속 유지더라도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창업으로 간주하여 재창업을 얼마나 사업경험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변수들간의 단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로짓모형과 OLS를 이용하고, 창업가 개인의 자기선택에 의해 추정의 일치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가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부로짓모형과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도구변수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 사업의 성공경험이 있을수록, 즉 과거 사업 기간 중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재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창업 경험이 많은 사업가 역시 재창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재창업 후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업경험과 창업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런 결과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조건부로짓과 고정효과 회귀분석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타고난 자질을 반영하는 도구변수로 노동시장 진입 후 첫 소득과 첫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역시 사업 경험, 특히 과거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재창업 후 초기 성과가 높았다.

내생성 통제하에서도 창업경험의 학습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경험있는 창업가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실증적으로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높은 성과(소득)를 보였던 창업가들이 이후 성과도 높았다는 점에서 성공사업가들의 생태계 환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노동패널은 앞서 벤처기업 설문조사와 달리 혁신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이 혼재되어 있어 기술혁신형 벤처창업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제4장은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연쇄창업가의 특징과 창업생태계에서 역할,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창업 경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사업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연쇄창업의 큰 특징

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식은 세무, 회계, 법률, 금융, 특허 등의 일반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수요, 기술, 환경, 경쟁구조, 산업특징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지식으로 나눌 수 있었고, 역량은 세 가지로 나누어, 인사, 재무, 마케팅, 리더십 등의 경영능력과 자신과 타인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기술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기업가, 기술 및 경영 전문가,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역량이 꼽혔다. 연쇄창업가는 창업생태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개방형으로 수집한 결과, 잠재적 창업가에게 자신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문가나 투자자와 연결해주며, 스스로 창업기업에 투자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응답이 수집되었다.

전문가 델파이 설문에서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금융거래 면에서의 어려움이었다. 실패에서 기인한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M&A 시장의 부재, 자금을 재투자할 때의 세금 문제, 창업 경험을 공유할 온-오프라인 채널의 부족함 등이 국내 연쇄창업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방안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의 점수를 수집하였다. 정책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 두 가지를 동일한 가중치로 합산하고 높은 순위의 정책방안 다섯 가지를 선택한 결과, 1) 기업매각 후 재투자자의 세제혜택 확대, 2) 창업지원기관 운영에 연쇄창업가 참여 확대, 3) 회생계획 성실 이행시 신용불량 조기 해제, 4)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에 실패 대비 교육 강화, 5) 신용회복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이 꼽혔다.

기업매각 후 재투자 세제혜택의 확대가 가장 높은 순위를 받았는데, 재투자자를 통한 연쇄창업가의 창업생태계 선순환 역할을 중요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조세특례법 제46조의8에 의해 벤처기업을 매각하고 대금 중 80% 이상을 재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과 같은 혜택이 법제화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조세특례는 2018년말에 일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매각대금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정책방안으로는 중요성과 실현가능성 모두에서 꾸준히 상위리스트에 나타났던 창업지원기관에 연쇄창업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현재도 창업보육기관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로 연쇄창업가의 참여가 존재하는데, 특히 TIPS 프로그램과 같이

정부가 R&D 및 창업자금으로 5억원 이상을 제공하고, 엔젤투자사는 멘토링을 제공하는 구조가 호응을 얻고 있다. 투자사는 1억원 내외로 지분을 투자하지만, 투자액보다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투자사는 멘토링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 역시 일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투자사의 스크리닝을 거친 창업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과 멘토링이 함께 공급되어 창업기업의 성과 향상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셋째와 다섯째로 꼽힌 정책방안은 신용회복과 관련된 항목이다. 비록 국세와 관련된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신용불량의 해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불량자의 성실한 회생노력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일괄적인 5년의 회복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동시에 판단하여 네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방안은 실패 대비 교육의 강화이다. 실현가능성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창업가들에게 창업 뿐만 아니라 사업마무리 단계의 정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 절차를 제시하고 각종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의 실패를 연구하고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연쇄창업 관련 국내 연구가 희박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연쇄창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정책지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쇄창업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쇄창업은(공동)창업가가 스스로 창업했던 혹은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했던 창업기업을 정리하거나 퇴사한 이후에 다른 기업을(공동)창업하거나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창업기업을 정리한다 함은 폐업, 타사에 매각, 기업공개 등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을 의미”하고,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한다함은 해당 기업의 핵심의사결정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연쇄창업을 1) 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거나 퇴사하여 얻은 수익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2) 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거나 퇴사하여 얻은 수익으로 다른 창업가에게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3) 창업기업이 실패하여 이를 정리하고 재창업하는 경우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 기업을 동시에 창업하는 포트폴리오형 창업은 배제함을 밝혔다.

또한, 연쇄창업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연쇄창업의 행태와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사업경험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인역량을 통제하는 기법,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탐색적인 델파이 기법을 소개하고 실제 적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국내 창업생태계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내 ICT 벤처기업 연쇄창업의 현황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연쇄창업의 성과는 공동창업하거나 업종을 유지하는 등의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며 그 효과는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였다. 혁신형과 생계형이 모두 포함된 일반 창업의 경우에도 노동패널을 통해 사업 경험, 특히 성공적인 사업경험이 이후 연쇄창업의 결정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델파이 연구를 통해 연쇄창업과 관련된 핵심어를 추출하여, 향후 연쇄창업을 분석할 때 파악해야 하는 전반적인 뼈대를 제시했다.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 역량,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연쇄창업에서 기인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나 문제점을 함께 수집하여 연쇄창업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였다. 국내의 부족한 연쇄창업 연구가 이를 통해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민간주도의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연쇄창업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환기되기를 기대한다. 연쇄창업가는 창업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창업과 관련한 가장 유용한 정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투입할 수 없는 창업생태계의 핵심요소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단기간의 시장 흐름을 포착해야 하는 기술창업 특성상 연쇄창업가는 자신이 가진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창업가, 투자자, 개발자, 공급자를 잇는 허브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경험, 지식,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다른 창업가나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환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민간주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용회복을 돕는 등 지금까지 오랫동안 정부가 관심을 가져온 제도전 정책과 함께 채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창업지원기관에 멘토와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투자수익 제고 등의 방식으로 성공한 창업가들의 자금을 창업생태계에 재투입할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예전 정부가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벤

처기업을 인증하는 요소투입형 방식을 사용했다면, 앞으로의 창업생태계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벤처기업을 멘토할 참여자는 정부가 아니라 연쇄창업가와 같은 민간 참여자가 될 것이며 정부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물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창업만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의 기업 성장, 폐업, 사업경험의 환류를 망라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창업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

SUMMARY

Korean startups have increasingly grown their potential in terms of their sizes and impacts on the economy. The number of government-approved venture firms reaches to its record high of 30,464 September 2015. They tend to grow faster and employ more people than other small and large firms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ve backed the country's startups ecosystem over the last 20 years following the legislation of Special Act on Supporting Venture Firms in 1997.

Recently, the government pays more focus not on funding and directly supporting startups but on fostering a private ecosystem. Ideally, the well-functioning ecosystem consists of people, startups, venture capitalists, accelerators, management service firms and relevant public or private organisations that cooperate with each other intensively to fund entrepreneurs, share knowledge and accelerate firm growth. In Korea, however, only 5% of venture startups are funded by private venture capitalists and the amount of funding by angels is merely 47 billion won in 2013. Many experts are worried that Korean venture ecosystem is still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yet to take its root firmly.

In that sense, the role that experienced entrepreneurs play in creating a virtuous cycle in the startup ecosystem is draw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ese so-called serial entrepreneurs have corporate management know-how, hands-on knowledge of the area in which they founded an enterprise and human networks in the ecosystem. Some of them are capable of investing in other startups with their successful exits from previous businesses.

Unfortunately, there are only limited studies on the role and performance of serial entrepreneurs in Korea. So far, most relevant studies have dealt with debt problems with business failures that have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in Korea. Private costs related with business failures are so high in Korea that are known to cause low rate of creating

business. Although debt and joint surety issue following business failure should not be ignored to motivate and encourage entrepreneurship, there are much more issues than business failures when it comes to serial entrepreneurship. For example, we are limited to have any empirical data about how many Korean entrepreneurs restart business, whether serial entrepreneurs perform better and if any, why they do better than novice entrepreneur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erial entrepreneurship in Korea and develop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serial entrepreneurship. To that end, this study is comprised of two parts: empirical study to analyze serial entrepreneurship based on real data using sophisticated econometric models and delphi interviews to derive policy measures on serial entrepreneurship. The first part of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erial entrepreneurs, we use the survey data for ICT startups in less than three years of founding and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second part of delphi interviews are carried out with eighteen specialists including six serial entrepreneurs.

Before the analysis, we define serial entrepreneurs as individuals who have sold or closed a business which they had founded or had a majority ownership stake in and currently have founded a new business or have a majority ownership stake in an independent business that is newly founded or inherited. While portfolio entrepreneurs have many in common with serial ones such as management experiences, they are excluded in this study to prevent confusion in terminology.

Using the ICT startups survey data, we compare serial entrepreneurs with their novice counterparts in terms of business behaviors and performances. As a result, we found that serial entrepreneurs are more focused on market expansion and profitability than novice entrepreneurs when starting a new business. They are more likely than novice ones to cofound a business with other entrepreneurs, enter a market with relatively large assets, expand their business into overseas market. They put more importance on large-scale production and expansion strategy through M&A than first-time entrepreneurs. They are more likely to cooperate with suppliers and customers but less likely with governments.

From the previous experience of founding and operating a business, serial entrepreneurs seem to learn that businesses have to be market-oriented and they are more capable of managing internal human relations and external network of supply chain. Consequently, serial entrepreneurs show stronger financial performance than novice entrepreneurs especially when they co-found a business. On the other hand, we found that serial entrepreneurs are less concerned about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show less patent application than novice entrepreneurs.

To better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al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we use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which have collected labor information over the last 15 years. This panel data allows us to control endogeneity problems related with serial entrepreneurship. There might be selection bias that individuals with high management skills repeatedly start businesses and show high performance. For the government support to be legitimate on serial entrepreneurship, learning-by-doing effect from business experience should be quite larger than self-selection effect. If not, government support causes much more market distortion by supporting businesses which otherwise could be enough funded and sustained by private efforts. Therefore, learning and selection effect should be empirically tested.

From the labor panel data, we derive three kinds of independent variables for business experience: average earning during previous businesses, cumulative years of previous businesses, and number of previous businesses. Econometric models address the endogeneity problem by including individual-specific fixed-effects or instrumental variables. Our instrumental variables that represent individual innate management capability are constructed by two variables: the first income in labor market either as an employer or an employee and the age of first business founding.

Our study finds that an entrepreneur who has more business experience is more likely to build a new business and to make more earnings even with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being controlled. Moreover, previous success experience measured by average earning during previous businesses has a strongly positive effect on subsequent

business performance, highlighting the spell of success. Therefore, learning effect from business experience is significantly evident and calls for government support to embed individual learning into the startups ecosystem.

Finally, using Delphi method, we make policy suggestions for supporting serial entrepreneurship. Eighteen experts on venture ecosystem were surveyed twice on characteristics of serial entrepreneurs, relevant issues in the Korean ecosystem and government roles. They highly rated the positive role that serial entrepreneurs play in the startups ecosystem and agreed that debt and credit delinquents issues following business failures ar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Korea. When they evaluate the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each of policy measures, the following five measure are selected as priorities to encourage serial entrepreneurship: 1) increase tax incentives for re-investment after the sale of a previous business; 2) expand the participation of serial entrepreneurs in programs provided by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3) remove the records of credit delinquents who faithfully follow their credit recovery program; 4) increase training courses that prepare trainees for failur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and 5) reduce the credit recovery period from the current five yea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defines the concept of serial entrepreneurship in academic terms, suggests research methodologies to analyze serial entrepreneurship, and actually performs empirical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serial entrepreneurs in Korea's startup ecosystem. This study also has policy implications as it proposes realistic government programs for serial entrepreneurs by considering both the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policy measure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Serial Entrepreneurship: Concept and Current Public Policy in Korea

Chapter 3. Serial Entrepreneurship in Korea: Empirical Study using ICT Startups Survey and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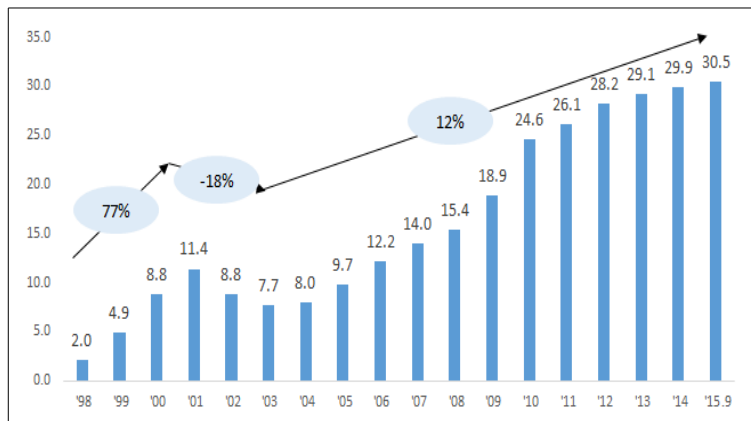
Chapter 4. Policy Suggestions for Embracing Serial Entrepreneurship into the Korean Startups Ecosystem: Delphi Study

Chapter 5. Conclusion

제1장 서론

국내 벤처기업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9월 기준 30,464개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벤처기업은 그 수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국내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에 실시된 벤처기업협회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은 68.4억원으로 전년(62.0억원)대비 10.2% 증가하여 대기업군(0.3%), 중소기업군(5.6%)보다 매출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총생산 비중(13.9%), 평균근로자수(24.7명)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기 벤처에서 크게 성장한 벤처기업도 속속 등장하여 매출 천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이 454개에 이르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74%, ‘히든챔피언’ 기업의 67.5%, ‘히든 스타 500’ 기업의 68.5%가 벤처기업이다. 벤처기업군이 국내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벤처확인제도에 따른 벤처기업 수 추이
(단위: 천 개사)



자료: 벤처인,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data/C61100.do>(2015년 10월 22일 검색)

이러한 벤처 성장 뒤에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계속되어온 정부 정책의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 1997년 벤처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창업관점의 중소기업정책이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정책자금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모태펀드 등을 통해 집중공급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시장친화적인 벤처생태계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 실현의 수단으로 벤처창업을 내세우고 있다.

〈표 1-1〉 우리나라 벤처정책 연혁

태동기 (86~97)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금융지원법 제정('86) • 중소기업청 개청('96)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97)
제 1의 성장기 (98~01)	• IT산업 급성장과 맞물려 벤처산업의 폭발적 성장 • 벤처기업 세제지원('98), 실험실 벤처 및 스톡옵션 시행('99) • 벤처 투자 2조 원 열기('00), 벤처기업 1만개 돌파('01)
조정기 (02~04)	• 反벤처 정서 확산 및 벤처정책에 대한 비판 고조 • 벤처기업의 투명성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 • 벤처기업확인제도 강화('02), 코스닥시장의 퇴출요건 강화('03) • 벤처 M&A제도 강화('03)
내실화기 (05~06)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에 역점 • 벤처기업활성화 대책(04. 12), 벤처활성화 보완대책(05. 6) • 1조 원 모태펀드 조성 추진(05), 시장친화적 벤처확인제도 개편(06)
재도약기 (07~12)	• 시장 친화적 벤처 생태계 완성 • 『벤처법』 유효기간 10년 연장('07. 8) • 대학·연구기관 기술창업(08) 및 1인 창조기업 지원(09) • 실패기업인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09), 연대보증제도 개선(12)
제2의 성장기 (13~현재)	• 성장단계별, 분야별 정책펀드 조성 및 투자 확대 •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용 • 창업교육, 네트워크·멘토링(엑셀러레이터) 강화 • 연대보증제도 등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벤처기업 3만개 돌파(15)

자료: 백 훈(2012), 나성현 외(2014) 수정 인용.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 협력하고, 인력의 공급과 이동이 자유로우며, 창업 및 투자 자금이 선순환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등록되는 비율은 5% 미만이고, 엔젤투자는 2013년 471억원에 불과하다. 벤처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어도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건수가 저조하여 자금의 선순환이 어렵다. 외부와 기술, 자금, 판로개척 등의 면에서 다른 창업가나 벤처캐피탈 등과 협력하는 벤처기업도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직 민간 주도의 활기찬 벤처생태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들이 다시 창업하거나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 혹은 창업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창업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쇄창업가(serial entrepreneurs)라고 불리는 이들 경험있는 창업가들은 기업 운영 노하우, 산업의 이해, 외부 인적 네트워크 확보 등에서 경험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공적인 회수를 통해 투자여력이 있다. 또한, 기술형 창업이라는 흔치 않은 경험을 겪은 소수의 사람들로서 벤처생태계에 대한 애착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과거에 벤처기업이었던 기업들이 이후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조유리 외, 2014), 벤처기업의 운영경험이 새로운 벤처기업의 기술, 사업, 조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연쇄창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로는 창업가가 사업에 실패한 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일부의 연구만이 존재하고 있다(배영임, 2014).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학계나 정부의 관심이 실패했을 때의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연쇄창업가가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연쇄창업은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지, 연쇄창업가의 성과는 어떠한지, 연쇄창업가가 기대만큼 창업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국내 연쇄창업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연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연쇄창업의 현황을 알기 위하여 국내 ICT 벤처창업에서 연쇄창업이 차지하는 비중, 신진창업과의 차이, 연쇄창업의 성과와 그 요인 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연쇄창업이 왜 중요하며, 연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적은 관계로 국내 연쇄창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계량분석을 통한 정밀 분석과 개략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탐색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서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실증적인 자료 기반으로 연쇄창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실증자료로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얻어진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다년간 수집한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를 통해 연쇄창업가가 신진창업과 다른 경영행태를 보인다는 것과 연쇄창업이 어떤 상황에서 더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검증되기 어려웠던 창업경험의 효과를 실증자료에 기반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국내 벤처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ICT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연쇄창업가의 특징, 역할, 연쇄창업의 문제점과 정부지원 방향에 대하여 탐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분석을 통해 연쇄창업과 관련한 일반현황을 정성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연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이를 통해 이번 연구보고서는 연쇄창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할 뿐 아니라 도출된 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자들이 새로운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연구재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쇄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은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도출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정책아이템을 도출한 후 각 정책방안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정부가 실행가능한 정책 위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실패기업인들의 재기지원에 머물러 있던 정책방향에서 탈피하여 창업교육단계에서의 접근, 성공한 연쇄창업가들의 멘토 역할 강화와 같은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적 관점에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연쇄창업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 성공사례와 실패통계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연쇄창업과 관련한 최근의 정부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정부지원이 실패기업인의 재기 및 재도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은 국내 연쇄창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제시한다. ICT 산업의 창업초기 벤처기업을 설문조사하여 연쇄창업과 신진창업 간의 경영행태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쇄창업의 재무적, 기술적 성과가 있었는지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계량분석한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하여 사업경험이 이후 창업여부와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창업경험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제4장은 전문가 델파이를 통하여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도출한다. 제5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한계점을 짚어보며, 연구결과를 통해 학술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제2장 창업생태계에서 연쇄창업가의 역할과 지원정책 현황

창업은 성공에 의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실패비용(cost of failure)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로도 기업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사회적·심리적·관계적 문제를 야기한다. Shepherd(2009)는 소수 경영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경우보다 실패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2차·3차적 문제가 증폭되어 실패로부터 회생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높은 실패비용은 결국 창업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주기에서 ‘재도전/재투자’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귀결된다. 이는 벤처창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며,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신진창업가(novice entrepreneur)에게도 창업에 대한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창업의 특성상 재창업·재투자에 대한 기회와 유인의 부족은 종국적으로 창업 자체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미 창업생태계에서 성공 혹은 실패를 경험한 연쇄창업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원활한 재도전 환경 구축과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쇄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쇄창업가의 창업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학문적·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¹⁾ 반면 국내에서는 연쇄창업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지 않아 ‘연쇄창업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활용 가능한 통계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²⁾ 이에 따라 본 제2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연쇄창업가의

1) 연쇄창업가 관련 기존 선행연구는 창업경험을 통해 얻은 연쇄창업가의 학습효과(learning effects)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연쇄창업가는 인적·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여 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창업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Delmar & Shane, 2006; Westhead, Ucbasaran & Wright, 2003; Stuart & Abetti, 1990).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고, 이어서 최근 들어 자금지원, 컨설팅지원, R&D지원 등 적극적으로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연쇄창업가의 개념 및 역할

국내에서는 연쇄창업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연구 수행에 앞서 연쇄창업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 확정이 필요하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연쇄창업가(serial entrepreneur) 개념을 신진창업가(novice entrepreneur) 및 포트폴리오창업가(portfolio entrepreneur)와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있다.³⁾ Westhead and Wright(2003)에 따르면, 신진창업가는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이 최초인 창업가를 뜻하며, 포트폴리오창업가는 동시에 여러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창업가를 의미한다. 반면 연쇄창업가는 순차적으로 수차례 창업을 경험한 창업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방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쇄창업’의 범주를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연쇄창업’은 “(공동)창업가가 스스로 창업했던 혹은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했던 창업기업을 정리⁴⁾하거나 퇴사한 이후에 다른 기업(공동)창업하거나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⁵⁾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연쇄창업의 유형을 세분화하면, ① 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거나 퇴사하여 얻은 수익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② 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거나 퇴사하

2) 다만 최근 중소기업청이 매년 수행하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서 2014년도 조사부터는 ‘대표자 및 창업주 특성’ 부문에서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 및 결과’에 대한 조사 항목을 신설하였다.

3)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가를 구분할 때 nascent entrepreneurs(예비 기업가)-novice entrepreneurs(신진 기업가)-habitual entrepreneurs(serial entrepreneurs & portfolio entrepreneurs)의 형태로 유형화 한다. 다만 ‘serial’의 번역과 관련하여 통상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연쇄’보다는 ‘연속’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도 존재한다.

4) 여기서 ‘창업기업을 정리한다’ 함은 폐업, 타사에 매각, 기업공개 등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을 의미한다.

5) 여기서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한다’ 함은 해당 기업의 핵심의사결정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 얻은 수익으로 다른 창업가에게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③ 창업기업이 실패하여 이를 정리하고 재창업하는 경우로 구체화할 수 있다(단, 여러 기업을 동시에 창업하는 포트폴리오형 창업은 배제). 요컨대, 연쇄창업가는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수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퇴출한 경험이 있는 창업가로서 재창업·재투자를 통해 벤처생태계에 재진입하는 모든 경우를 포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선순환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는 엔젤투자 활성화, 회수시장 및 재투자 확대, 실패 이후 재도전 과정의 병목현상 해소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의 창업 기피⁶⁾, 사회적 편견 및 부실책임 우려에 따른 소극적 지원, 차별적 제도 및 관행 등 재도전 창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단순히 창업기업의 양적 확보가 아닌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 확보를 위해서는 성공 혹은 실패한 기업인의 창업생태계 환류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연쇄창업은 창업으로 인한 성과를 재투자로 이어가고, 이를 통해 다시 신규창업 및 재창업을 촉진하여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쇄창업의 활성화는 양질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또 다른 돌파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연쇄창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연쇄창업가들은 그들의 창업경험과 인수합병을 통해 얻은 자금을 토대로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등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 내에서는 잦은 인수합병으로 인해 핵심기술 및 특허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받기도 한다.⁷⁾ 이스라엘에서 연쇄창업이 활발한 이유는 벤처투자자들이 채권자가 아닌 주주로서 투자에 참여해 실패 부담을 나누는 기업가정신 문화와 세계 2위 수준의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벤처기업 석박사 창업비율은 2009년 31.7%에서 2010년 28.6%, 2012년 26.3%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10. 30).

7) Dow Jones Venture Source(2014)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이스라엘(3.95년)의 스타트업 평균 인수합병 기간은 독일(3.97년), 영국(6.41년), 프랑스(6.66년), 스웨덴(9.03년) 등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재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축적된 경영방식, 기술, 유통망 등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창업에 비해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Gompers et al.(2008)는 최초 창업에서 성공한 이후 재창업 시 성공률은 30%이고, 신규 창업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재창업 시 20%의 성공률을 보이며, 신규 창업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18% 수준이라고 분석하였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조사결과에서도 창업 3개월 이내에 흑자 달성기업의 비율은 재창업 기업이 55.4%인데 반해, 신규 창업 기업은 3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재창업 기업이 상대적으로 단 기간에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09. 6. 24).

다만 연쇄창업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학계·연구계에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는 네트워킹 차원에서 다양한 인맥을 활용하여 사업 기회를 좀 더 쉽게 포착할 수 있고, 벤처캐피탈(VC) 등 금융지원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창업경험으로 얻은 학습기회를 통해 창업의 불확실성을 상쇄시키고 창업가의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Shepherd et al., 2007). Westhead et al.(2003)은 연쇄창업가의 기업 매출총액이 신진창업가에 비해 유의하게 크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반면 연쇄창업가의 창업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에서는 수차례의 창업경험과 성공에 대한 기억이 ‘초낙관주의(overoptimism)’로 흘러가 외부로부터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감소시킴으로써 성공에 대한 경험이 실패 경험보다 학습효과가 훨씬 낮다고 평가하기도 한다(Madsen and Desai, 2010). 또한 연쇄창업가와 신진창업가 사이에 경영성과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설명하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Carter and Ram, 2003; Iacobucci and Rosa, 2004).

제 2 절 연쇄창업가 성공사례 및 재창업 관련 현황

1. 국내외 연쇄창업가 성공사례

해외 선진국에서는 벤처를 창업한 이후, 다른 기업 또는 기업가에게 그 육성을 맡기거나 인수시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연쇄창업가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 중에는 크게

성공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연쇄창업을 수용하는 제도 및 문화가 발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쇄창업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경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특유의 ‘후즈파(chutzpah) 정신’으로부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역동적인 창업 환경이 구축될 수 있었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창업가들이 후배 스타트업을 특별한 조건 없이 도와주는 ‘페이잇포워드(pay it forward) 문화’가 발달하였다.

연쇄창업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엘론머스크’는 수차례 창업에 성공한데 이어 현재 연 매출 60억 달러(14년 기준)를 기록한 혁신적인 전기자동차 회사인 ‘Tesla Motors’의 창업가이자 CEO로 활동 중에 있다. 엘론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생의 캐나다계 미국인으로 스탠포드대학교 박사과정 입학 이틀 만에 학교를 떠나 웹기반 뉴스 관련 SW 회사인 ‘Zip2’를 창업한 것을 시작으로 온라인 금융서비스회사인 ‘X.com’, 온라인 결제시스템 회사인 ‘PayPal’을 공동 설립하였고, 이후에도 PayPal을 eBay에 매각한 자금(15억 달러)을 기반으로 우주여행 스타트업인 ‘SpaceX’, 전기차회사인 ‘Tesla’ 등을 연속적으로 창업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밖에도 레코드 회사, 저가 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Virgin 그룹을 설립한 ‘리처드 브랜’, ‘Blogger’란 이름의 회사를 구글에 매각한 이후에 Twitter를 공동창업한 ‘에반 윌리엄스’, Skype를 설립하여 eBay에 매각한 후 Kazaa, Rdio, Vdio 등 다수의 회사를 추가적으로 매각한 ‘젠스트롬’과 ‘프리스’, Blockbuster Video, AutoNation, Waste Management 등 활발한 연쇄창업을 시도한 74세의 ‘웨인 휘젠가’ 등 다양한 성공사례가 존재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성공한 연쇄창업가들이 일부 등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쇄창업이 활발하지는 않다. 특히 신규창업 당시의 성공을 바탕으로 재도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실패를 딛고 재기차원에서 재도전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벤처투자회사인 ‘본엔젤스’의 장병규 대표는 세 차례 창업의 시도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성공한 연쇄창업가이다. 장병규 대표는 1997년 인터넷 기업인 ‘네오위즈’를 공동 창업하여 커뮤니티 서비스 ‘세이클럽’, 게임 포털 ‘피망’ 등을 성공으로 이끈 후, 2005년에는 국내 검색 엔진 ‘첫눈’을 만들어 네이버에 매각하였고, 2007년에는 ‘블루홀스튜디오’라는 게임회사를 창업하여 ‘테라’라는 게임을 성공시켰다. 현재는 ‘본엔젤스’를 운영하면서 KT에 인수된 동영상 업체인 ‘엔써즈’, 음식 주문 앱인 ‘배달의민족’ 등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성공사례로 ‘패스트트랙아시아’의 노정석 대표는 첫 창업에 실패한 이후 블로그 개발회사 ‘태터엔컴퍼니’를 아시아 최초로 구글에 매각하면서 구글에 입사하였고, 재차 창업을 시도하여 2014년 모바일앱 사용자 분석 기업 ‘파이버락스’를 모바일 광고회사 ‘탭조이’에 약 400억 원으로 매각하였으며, 현재는 ‘패스트트랙아시아’에서 티켓몬스터·미미박스 등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등 엔젤투자자로 활동 중에 있다. 이 밖에도 ‘비키’를 일본의 라쿠텐에 매각하고 ‘빙글’을 창업한 호창성·문지원 대표나 ‘올라웍스’의 창업자 류중희 대표는 엑시트 이후 각각 더벤처스, 퓨터플레이 등 벤처 투자회사를 만들어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대다수 기업들은 한 번의 성공을 거둔 뒤 잠잠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끊임없는 혁신추구를 통해 더 큰 성공에 도전하는 기업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 2-1〉 국내 대표적인 연쇄창업가 성공사례

창업가	연쇄창업 경력	투자자 경력
장병규	네오위즈 창업·첫눈(네이버 매각)·블루홀스튜디오 창업(테라 게임)	엔젤투자자 ‘본엔젤스’ 창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라이머’ 공동 창업, 엔씨즈의 KT 매각, 틱톡의 SK 플레닛 매각 등
노정석	젠터스(실패)·태터엔컴페니(구글매각)·파이버락스(탭조이 매각)·킵코코리아(15. 4 창업)	스타트업 기획·육성 스튜디오 ‘패스트트랙아시아’ 공동 창업, 티켓몬스터, 눔, 미미박스 등 스타트업에 투자
호창성·문지원	비키(라쿠텐 매각)·빙글 창업	벤처투자사 ‘더벤처스’ 창업
김정현	딜라이트 공동창업·우주창업	—

자료: 《중앙일보》(2015. 1. 8) 등 언론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

2. 실패기업(인) 및 재창업 관련 현황

연쇄창업 활성화를 위해 성공한 창업가를 대상으로 재투자에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창업가들이 원활히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

요하다. 우리나라는 창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⁸⁾ 파산 시 채무자에게 불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창업 및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⁹⁾ 국내 실패기업인들은 제도전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원인과 재창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패기업인이라는 특성상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몇몇 선행연구에서 실태조사 형태로 부도기업인 또는 폐업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패요인과 재창업 관련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2005년 2월 전국부도기업인재기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도기업인들의 부도 이전의 기업규모는 연매출 10억~30억 원 미만이 60%, 10억 원 미만이 25%, 30~100억 원 미만이 15%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도 이후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기업인으로 재기한 경우는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결말(40%), 최저생활비(30%), 경제활동을 위한 은행거래 회복(20%), 취업(10%) 등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2009년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 70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청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설문 당시 미창업자는 58명(82.9%)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재창업에 성공한 12명(17.1%)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자는 1명에 불과하였고, 지인·친척 등을 통해 조달(5명)하거나 스스로 자금을 마련(4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도 이전의 창업 당시 자금조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지인을 통한 경우가 75%,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실패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¹⁰⁾ 본 조사

8) 우리나라에서 창업과정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비용은 '14년 기준 인당 GNI 대비 14.5%로 OECD 평균 3.4%를 상회하여 OECD 최상위권 수준으로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며, 창업 투자 활동 또한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WEF, Doing Business 2015). 여기서 창업소요 비용은 일반적인 가정 하에서 각 창업 과정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인당 GNI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9) 우리나라의 파산회복비율(bankruptcy recovery rate)은 '14년 기준 83.1%로 OECD 평균 71.9%를 상회하며 창업가에게 파산에 대한 부담이 큼을 시사한다(WEF, Doing Business 2015). 여기서 파산회복비율은 1달러의 채무에 대해 재조직화, 유동화, 압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채무자가 회수하는 평균적인 채무(센트) 비율을 의미한다.

는 2010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작한 ‘재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한 기업 210개사와 벤처기업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폐업벤처기업 447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최종 응답한 기업은 83개사로 많지 않은 표본조사가 이루어졌다. 폐업의 주된 이유로는 외부환경 악화가 42.7%로 가장 많았고, 경영능력 부족이 20.7%, 도산은 15.9%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 당시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없었던 경우는 16.0%에 불과하였고, 본인+가족의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고, 본인+가족+지인인 경우는 21.0%이다. 연대보증의 경우 가족, 지인 등과 함께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실패기업인들의 실패원인은 자금(57.3%)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판로(20.7%), CEO 리더십(8.5%), 인력(7.3%), 기술(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폐업의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도산	경영능력부족	외부환경	건강 악화	기타
사례수		82	15.9	20.7	42.7	—	20.7
구분	재창업자	51	19.6	19.6	43.1	—	17.6
	비재창업자	31	9.7	22.6	41.9	—	25.8

자료: 백필규(2011).

〈표 2-3〉 폐업시 연대보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연대보증 없었음	본인만	본인+가족	본인+지인	본인+가족+ 지인
사례수		82	15.9	20.7	42.7	—	20.7
구분	재창업자	51	19.6	19.6	43.1	—	17.6
	비재창업자	31	9.7	22.6	41.9	—	25.8

자료: 백필규(2011).

이들 중 재창업자들이 폐업 이후 재창업까지 걸린 시간은 5년 이상이 34.7%, 3년~5년 미만이 16.3%, 1년~3년 미만이 26.5%, 1년 미만이 26.5%였다. 재창업 시 가장 큰 걸림돌로는

10)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백필규(2011)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니, 참조하기를 바란다.

신용불량 회복(88.2%)과 신용 불량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가능(82.4%)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밖에 연대보증 등 폐업한 기업의 후유증이 아직 끝나지 않거나(41.2%), 실패에 대한 두려움(5.9%), 가족의 반대(5.9%)는 큰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한편 김인수(2015)에 따르면 2014년 KAIST 기업가정신센터는 폐업기업 82,15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폐업 전에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창업한 경우는 14,952개로 전체 폐업기업 가운데 18.2%를 기록했다. 폐업기업의 대표가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재창업한 5,904개 기업 중 4,260개 사(72%)는 은행거래 및 기업 영업 활동 기록이 없었고, 1,276개사(21.6%)는 재폐업하는 악순환을 보였다. 또한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재창업 기업수와 재창업까지 소요된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해가 지날수록 재창업하는 기업 수는 늘어났지만, 재창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시작한 제도전 지원정책의 효과로 인해 재창업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재창업까지 소요 기간은 2013년에는 5년을 넘는 등 점차 장기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 재창업 기회를 갖지 못했던 기업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창업에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4〉 재창업년도 기준 재창업 기업 수 및 재창업까지 기간

재창업 연도(년)	재창업 기업수(개)	재창업까지 기간(개월)
2007	308	29.6
2008	383	34.2
2009	567	38.1
2010	780	43.6
2011	916	48.3
2012	1,140	54.4
2013	1,357	62.1

자료: 김인수(2015).

또한 KAIST 기업가정신센터는 실제 146개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한 실패 유형 및 내용을 1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실패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은 기술개발 미흡, 제품개발 지연, 아이템 검증 미흡 및 지식 부족 등 창업아이템 및 수익모

텔의 부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146개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 및 내용

구분	주요 실패 요인	빈도
1	창업아이템 검증 미흡, 불완전한 제품 개발, 제품개발 지연, 아이템에 지식 부족, 기술개발 미흡, 수익모델 부재	56
2	인력관리 실패, 직원 횡령 발생, 동업자 과도한 신뢰, 성급한 승계	26
3	마케팅 실패, 판로 미개척	22
4	경영환경 변화 인지 부족, 정부정책 변화 대응 미흡, 금융위기 대응 부족	21
5	자본조달 및 관리 문제, 대금 회수문제 유동성 문제	18
6	경영능력, 생산관리 능력 부족	16
7	거래처, 공급자 관리와 개발 실패, 과도한 믿음	13
8	사업준비부족, 과도한 의지와 준비 안 된 창업, 성급한 창업, 경험부족, 창업팀 능력부족 및 태만	10
9	해외진출 실패, 무리한 해외진출, 해외시장 기회 포착 실패, 해외파트너 선정 미숙	9
10	기술사업화 실패, 제품화 투자유치 실패	7
11	불완전한 계약, 계약서 작성 미흡과 계약내용 확인 미흡	6
12	소비자 반응 미감지, 시장수요 파악 미흡, 경쟁기업 분석 미흡	5
13	창업자 몰입 부족, 경영자의 자질 부족, 독단, 자만	3

자료: 양태용 외(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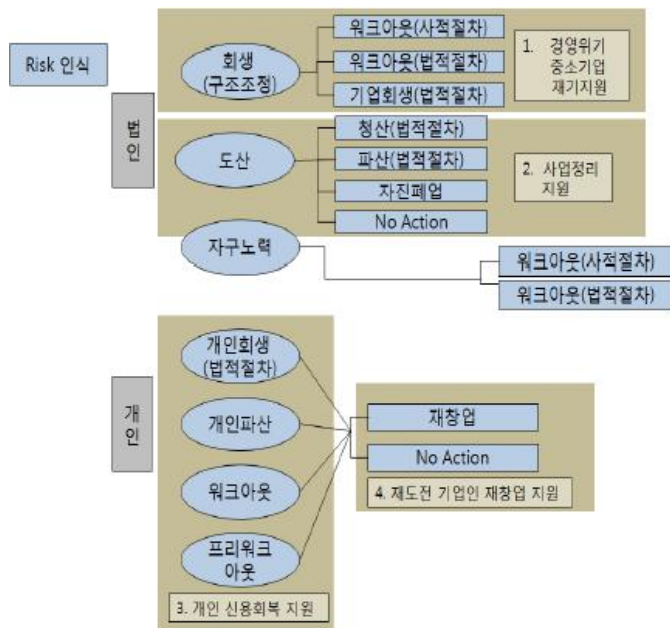
제 3 절 연쇄창업가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벤처창업에 있어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연쇄창업가의 사업 관련 노하우 및 네트워크 등 무형자원이 벤처생태계에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 → 성장 → 회생 → 퇴출 →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에서 전주기적 제도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¹⁾ 제도전 지원제도에는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회생컨설팅·사업전환 등 법인 회생절

11) 2008년 EU에서도 ‘사회적 인식 개선 → 조기경보 및 예방체계 정비 → 파산절차 개혁 → 재창업 지원’ 등 포괄적인 제도전 정책(Second Chance Policy)을 마련한 바 있다.

차를 지원하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법인 청산·파산·폐업 등 ‘사업정리 지원 제도’, 기업인 개인에 대한 회생·파산면책·채무조정 등 ‘개인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그림 2-1 참조). 제도전 지원제도를 창업기업이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 경영위기에 빠진 시점에 기업 상태를 진단 및 처방하는 것에서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절에서는 재창업 또는 재투자에 제도전하는 연쇄창업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원정책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연쇄창업에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전 지원제도’와 ‘재투자 지원제도’로 범위를 좁혀 연쇄창업 활성화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림 2-1] 중소기업의 제도전 지원제도의 단계별 분류



자료: 이재호 외(2014).

1. 제도전 · 재창업 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

정부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 5. 15)」, 「창조경제 실현계획(2013. 6. 5)」, 「중소기업 제도전 종합대책(2013. 10. 30)」,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2015. 10. 14)」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전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5. 1. 15)」에서도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창업·제도전 분위기 확산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2013년 5월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 기존의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10월 「중소기업 제도전 종합대책」에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의 면제, 재창업 성공률 제고 등을 통한 우수 인력의 도전적인 창업 촉진과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기업실패 최소화 등을 발표하면서, 벤처패자부활제(05년), 2010년 재창업자금 지원제도(10년), 재창업지원위원회(12년) 등 기존의 단편적인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전주기적인 제도전 종합대책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최근 2015년 10월에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창·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으로 통합하고,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 신규 보증을 금지하는 기존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재창업지원’ 사업을 정비하고, 생태계조성 차원에서 ‘재창업 사관학교’ 설치와 ‘제도전 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에서는 2013년을 전후로 하여 다양하게 제도전·재창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창업 자금 확대,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지원시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원정책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크게 자금지원, 신용회복, 교육지원, 인프라 조성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기 및 제도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 제도전 지원 사업 추진계획(2014. 4. 24)」을 수립하여 그 간에 마련한 제도전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토대로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재기기업인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2013년 1,000억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내 재기펀드’를 결성한데 이어 2015년부터 펀드 자금을 1,400억 원 내지 2,000억 원 규모로 확대·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밖에도 ‘제도전 전용자금(17년까지 1,000억 원으로 확대예정)’, ‘재기기업 펀드(200억 원)’, ‘제도전 R&D 자금지원(2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K-Global Startup ICT 제도전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실패경험이 있는 ICT 분야의 본인창업가 또는 공동창업가를

대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단계별로 총 35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K-Global Startup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제도전분야'에서는 제도전 기업인의 경험 및 노하우를 창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전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단계별 차등지원을 통해 최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달리 폐업할 때의 지적재산 혹은 폐업 이후 회생 시 발생 비용 지원 등 폐업 기업인의 재창업 발판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양태용 외, 2015). '제도전 기업 선별지원 및 재창업 자금'을 2013년 425억 원에서 2014년 525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13년 기준 과제당 1억 원 한도)', '재기지원 펀드(13년 200억원)', '회생컨설팅 비용 지원(14년 기준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제도전 전용 R&D 자금(30억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중기청·중진공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 자금'을 통해 사업 실패 이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재창업 중소기업의 R&D 자금을 지원(개발 총 소요 비용의 90%)하여 재기를 돕고 있다.

둘째, '신용회복'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2년 5월 「금융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방안」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3차례에 걸쳐 개선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하며,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인정하고 있다(단, 공동대표 존재 시 연대보증 총액을 분할 부담). 연대보증의 예외적 허용사유로 은행권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대출(조합 등 법인격 없는 단체 명의 대출/제3자가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의 경우 허용하고 있고, 신·기보는 보증 대상기업과 동일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거나 회생지원보증 취급 시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경우를 들고 있다. 최근에는 신·기보의 대출 보증을 10년 넘게 받아 연명해온 한계기업들에 대한 지원액을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충원하는 정책보증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금융위원회, 2015. 11. 4). 또한 연대보증의 면제범위 축소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왔는데, 회생·파산 절차에 따라 주채무자 채무 감면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 감면('13. 4 신기보법 개정),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연대보증채무 조정 기회 부여('13. 5),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13. 7) 등을 추진하였다. 이 밖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감면(이자 전액/상각채권의 원금 최대 50%감면), 상환유예(채무 2억원 이하 최장 3년/2억원 초과 최장 10년), 상환연장(채무 2억원 이하 최장 8년/2억원 초과 최장 10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성실실패자 제도전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성실실패자에게 제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제지원 차원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및 시행령을 신설하여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채납처분을 3년간 유예하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기업을 '창업'으로 보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하였다(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셋째,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제도전 comeback 캠프' 대회를 개최하여 제도전 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술보증 기금에서도 재창업자들의 성장역량 및 생존력 강화를 목표로 기술·경영 컨설팅(자금/재무관리/회계/법률/M&A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기청과 창업진흥원은 '제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진행하여 우수한 제도전 사업계획을 보유한 재기기업인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교육에서 사업화 지원 및 후속 연계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제도전 중소기업경영자 힐링캠프'에서는 우수한 졸업자들을 '제도전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후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재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재창업사관학교 신설', '제도전 종합지원센터 확대', '3대 권역별 제도전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10. 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2010년에 '재기지원을 위한 재창업 지원 제도', '자영업자 재기 특례 보증 실시', '실패기업인 재창업 자금 지원사업' 등을 도입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최근 들어 연대보증 제도의 지속적 완화, 제도전 자금지원 확충, 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범주에서 범정부적으로 제도전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핵심적인 사항은 <표 2-6> 참조).

〈표 2-6〉 재도전 관련 주요 정책추진 현황

지원구분		주요 내용
자금지원		• 미래부: 성장사다리 펀드 내 재기펀드 확대('13년 1,000억원→'15년 1,400~2,000억원 확대예정) / 재도전 전용자금 확대('13년 400억원→'17년 1,000억원) / 재도전 전용 R&D 자금('13. 4. 20억원) • 중기청: 재도전 기업 선별지원 및 재창업 자금('13년 425억원→'14년 525억원) /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13년 과제당 1억원 한도) / 재기지원펀드 결성('13년 200억원) / 회생컨설팅 비용 지원('14년 업체당 최대 3,000만원) / 재도전 전용 R&D 자금('13. 4. 30억원) • 금융위: 실패기업인 재기지원보증('13년 64억원→'14년 180억원)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15억원 규모) / 경영개선지원 신규보증('13년 664억원→'14년 1,000억원) / 채무감면 및 신규자금지원(최대 30억원)
신용회복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제3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 책임자 1인 이외 연대보증 폐지(제1금융권('12. 5)→제2금융권('13. 7)) •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중진공, '13. 7)→우수 창업기업·전문가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연대보증 면제(신·기보, '14. 2)→기존 기업 중 신·기보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 적용('15. 4)→창업 5년 이내의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관계부처합동, '15. 10)
	채납 및 채무 감면	• 국세채납 유예 및 감면: 성실납세 기업인에 대해 채납처분 3년 유예 및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이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기재부, '13. 9); 현재 2015년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 • 채무 감면 지원: 신기보 보증 지원 받은 기업이 기업회생절차 거치면 연대보증인 채무 감면('13. 4)→중전 정책금융의 재창업자 최대 감면인 50%에서 75%로 감면 폭을 확대(관계부처합동, '15. 11)
	회생절차 완화	• 회생계획 성실 이행 등 충족 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금융위) • 회생절차 소요기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및 비용 감축(법무부, '13. 4)
교육지원		• '재도전 comeback 캠프(미래부)', '재도전기술·경영 컨설팅 지원(기술보증기금)', '재도전성공패키지(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인프라 조성		• 재창업사관학교 신설,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확대('16년까지 7개), 3대 권역별 재도전 클러스터 조성(관계부처합동, '15. 10)

2. 재투자 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

국내 벤처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회수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대표적인 엑시트 수단인 기업공개 혹은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¹²⁾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기존 벤처투자자뿐만 아니라 성공한 연쇄창업가의 입장에서조차 후속적으로 후배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공한 벤처기업들의 자금과 경험을 활용하여 신규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사업 및 자금지원은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것에 편중되어 있어 재투자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과 간접적인 지원 시책으로서 전문엔젤 투자제도 도입 이외에는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2014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조를 신설하여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80% 이상을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제정하였다(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기업(193개)의 78%가 재투자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과세이연 특례 제도는 성공한 벤처기업인의 재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지만, 적용기한이 한시적이고 적용범위가 엄격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연쇄창업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14. 7. 15)」을 통해 엔젤투자를 리드할 수 있는 ‘전문 엔젤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문 엔젤제도는 일정 수준의 경력 및 투자 실적을 갖춘 투자자를 선정하여 엔젤펀드 매칭비율과 펀드자금 신청 한도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문엔젤 제도는 2000년 5,000억 원이 넘는 엔젤투자 규모가 2011년 10% 이하 수준으로 급감함

12) 미국은 2013년 M&A를 통한 엑시트 비중이 61.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1년(1.5%)→2012년(1.0%)→2013년(0.3%)→2014년(0.7%) 등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 내외를 보이고 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에 따라 전문 엔젤투자자를 발굴·육성해야 한다는 배경으로 도입하게 되었다(중소기업청, 2014. 9. 26).¹³⁾ 최근에는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15. 11. 18 발효)을 통해 전문 엔젤투자자 선정 대상을 기존 상장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3년 이상), 투자심사역, 기술사, 이공·상공계열 박사 등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투자요건과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 지분 보유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 엔젤투자자에 선정된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벤처창업생태계에서 창업경험을 가진 창업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13) 국내 엔젤투자자의 규모는 2000년 5,493억 원, 2003년 3,031억 원, 2007년 897억 원, 2010년 341억 원, 2011년 428억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3장 국내 연쇄창업 실증분석

이번 장은 국내의 연쇄창업 현황에 대하여 실증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실제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1절은 최근 문헌을 정리하고, 이후에 국내 벤처기업에서 연쇄창업이 차지하는 비율, 연쇄창업과 신진창업 간의 경영 행태의 차이를 살펴보고, 연쇄창업가의 성과와 그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국내 현황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쇄창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자료로 ICT분야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설문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한다. ICT 벤처기업 자료를 통해 기술형 연쇄창업의 경영행태와 성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노동패널자료를 통해 연쇄창업의 경험 학습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지원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절 기존문헌연구

연쇄창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문헌을 살펴보면, 국내는 배영임(2014)과 같이 앞서 다른 제도전 위주의 연구가 소수 있으며 미국, 유럽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실패와 성공 이후 창업을 두루 살피는 연쇄창업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해외 문헌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벤처기업의 설문조사를 통해 연쇄창업과 신진창업의 행태를 비교분석하는 유형, 벤처캐피탈 투자 자료에서 연쇄창업 현상을 분석하는 유형, 노동패널자료를 통해 개인의 취업특성을 파악하여 연쇄창업을 분석하는 유형이다. 각각에 대하여 문헌을 살펴 보자.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연쇄창업 행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들이다. Westhead et al. (2005)의 논문이 설문을 바탕으로 한 초기 연쇄창업 실증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신진, 연쇄, 포트폴리오 창업의 세 가지 창업 방식을 구분하였다. 창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 유인, 혁신에 대한 태도, 기회 포착에 대한 태도, 조직 역량, 조직 성과 등에 대한 설문 응답의 고저를 세 가지 창업 방식에 대하여 t-검정하여 비교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세 유형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창업태도면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쇄, 포트폴리오 창업이 신진창업보다 위험회피 성향이 강하면서 자금모집 방식이나 연구개발 활동에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i et al.(2009)는 2002~03년에 걸쳐 중국 벤처 성장의 중심지인 장강(Changjiang)과 주강(Zhujiang) 지역의 창업가들에게 설문조사하였다. 벤처기업의 조직역량, 네트워크역량, 시장역량, 차별화 전략이 연쇄창업과 신진창업 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이 차이가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쇄창업여부와 기업의 역량여부를 단순 유무문항으로 물어 측정하고 단순회귀분석하였다.

Anokhin et al.(2008)은 중국과 독일의 창업자 315명에게 창업 목적, 창업 유인, 개인역량, 경영자원, 경영전략을 설문조사하였다. 로짓회귀분석을 통해 특정 영역의 역량이 높은 개인(specialist)보다 일반 경영 능력이 높은 개인(generalist)이 연쇄창업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중국과 독일 간의 창업자 간에 개인특성 차이가 있으나 연쇄창업가인 경우 국가 간 차이가 사라짐을 t-검정으로 보였다.

Ucbasaran et al.(2010)은 576명의 영국 창업가에게 본인 기업의 성공확률이 타사보다 높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연쇄창업가의 낙관성향을 분석하였다. 낙관적인지 여부를 프로빗 분석하여 실패경험이 없는 연쇄창업가는 신진창업가보다 낙관성향이 강함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창업경험을 통한 학습이 실패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연쇄창업가에 대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쇄창업 현황 분석은 자료가 단순하여 자료의 획득과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 문항 구성에 따라 창업자 특성, 기업 특성, 기업 경영과 관련한 정성적 특성을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연쇄창업에 따른 기업 행태의 변화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단면 조사에서 오는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연쇄창업과 기업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불가능 변수가 배제되는 문제(omitted variables), 높은 성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창업하게 되는 역인과관계 문제(inverse causality),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창업가만이 연쇄창업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 등의 내생성을 통제하려면 정교한 계량경제 분석모형을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벤처캐피탈 투자자료를 이용하여 연쇄창업을 분석하는 문헌들이 있다. Gompers

et al.(2010)은 1985~2000년의 VentureSource(VentureOne의 다른 이름) 투자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창업자,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특성을 추적 연계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벤처기업의 성과는 기업공개(IPO) 여부로 측정하여 프로빗 회귀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전에 성공한 창업가가 다시 성공하는 패턴이 있음을 보였으며, 이러한 성공은 적절한 진입시기를 포착하는 능력(timing skill)과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능력(managerial skill)의 우위에서 기인함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벤처기업을 골라내고 키워내는 벤처캐피탈의 능력은 신진창업가에게는 유효하지만 연쇄창업가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Zhang(2011)은 1992년에서 2001년까지 VentureOne 벤처캐피탈 투자자료를 이용하여 연쇄창업가가 벤처캐피탈 투자에 더 유리한지를 분석하였다.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적이 있는 연쇄창업가는 이후 창업에서 초기단계에 투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이전에 투자를 받아본 적이 없는 연쇄창업가더라도 후기로 가면 역시 신진창업가보다는 더 많은 액수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있음을 보였다. 연쇄창업가는 이전 사업을 운영하면서 벤처캐피탈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다음 창업시에 빨리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 경험을 통해 창업 역량이 증대하여 늦게라도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량모형은 단순회귀모형과 Cox 위험모형을 사용하였다.

Eggers and Song(2013)은 중국 기업을 설문조사하고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자인 VentureXpert를 사용하여 창업 실패 후의 연쇄창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과 측정은 자료의 특성에 맞추었는데, 중국의 경우 기업 규모의 성장률,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여부를 사용하였다. 로짓분석으로 이전에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가 이후 연쇄창업하면서 사업분야를 바꿀 확률이 높고, 이러한 변화가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벤처캐피탈 자료는 기업가치평가 등 투자관련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은 대부분 혁신형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분야에 적절하다. 하지만, 창업가 개인을 추적하려면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만 표본에 수집되기 때문에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작용하거나 자료의 왜곡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신진창업시에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지 못했다가 이후 연쇄창업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사실상 연쇄창업이지만 벤처캐피탈 데이터상에서는 신진창업으로 처리된다. 연쇄창업일수록 벤처캐피탈 투

자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이러한 자료 왜곡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벤처캐피탈 자료는 기업의 특징, 예를 들어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세번째 문헌 유형은 노동패널자료에서 개인의 취업특성을 분석하여 연쇄창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연구 주제는 주로 창업 경험을 쌓은 연쇄창업가가 신진창업가보다 실제로 더 높은 성과를 내는지, 성과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Parker(2013)는 25년에 걸친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사용하여 창업경험을 통한 학습효과가 연쇄창업의 성과로 이어지는지 분석하였다. PSID는 1968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장 기간의 노동패널 데이터로 가계를 분석 단위로 하고 있다. 수입, 취업형태, 근무시간, 인구통계학 정보 등을 담고 있는데 자영업(self-employed)이라고 대답한 경우를 창업이라고 측정한다. Parker(2013)는 창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앞서 창업이 있는 경우에 수입이 더 높은지를 동적패널자료 회귀모형(dynamic panel data regression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즉, 연쇄창업별로 수익을 차분하여 창업자 개인별 고정효과를 제거하고 전기 수익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이전 창업의 경험에서 오는 학습효과로 수익이 높게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여 3년 이상이 되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쇄창업의 유인은 이전 창업의 성과보다 창업가 개인의 교육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이기도 하였다.

Chen(2013)은 연쇄창업가가 높은 성과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국의 NLSY79(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NLSY79는 1979년 당시 14세에서 22세였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후 노동이력을 추적한 것이다. 사업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창업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최고경영자, 사장,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다. 연쇄창업가가 신진창업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관적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Chen(2013)은 이 이유를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에 의한 것인지 창업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자가 재창업하게 되는 선택효과(self-selection)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로짓모형, OLS모형 등 단순계량모형을 사용하면 이전의 창업경험 학습효과가 이후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모형(conditional logit,

fixed-effect OLS), 도구변수모형(IV probit, 2SLS)을 사용하면 창업경험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의 수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연쇄창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창업 역량이 뛰어난 개인들만이 다시 창업을 시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ocha et al.(2013)은 포르투갈의 1986년부터 2009년까지의 고용자-피고용인 패널자료인 Quadros de Pessoal(QP)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전 사업운영의 경험이 이후 창업의 생존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단순 Weibull 모형 추정을 하는 경우 경험이 이후 생존율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쇄창업 유무를 1단계 선택모형으로 추정하고 2단계 생존율 추정 모형을 사용하면 경험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함을 보였다. 창업경험의 효과가 일부 있으나 창업능력을 가진 개인이 자기선택(self-selection)하는 영향이 연쇄창업 성과에 더 크다고 하였다.

노동패널은 장기간의 개인자료를 축적하기 때문에 연쇄창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 가장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 자영업, 실업 등의 취업 유형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 분석할 수 있다. 창업가 개인의 생애를 분석단위로 삼기 때문에 자영업의 시작과 종료, 지속 기간, 수익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몇 십년간의 장기 축적이 필요하고 자료의 구조가 난해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혁신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의 질을 고려할 수 없고, 개인 자료만 있을 뿐 기업 자료가 없어 기업활동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앞서 짚어본 대로 연쇄창업과 관련한 세 가지 유형의 실증자료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설문조사와 15년간의 한국노동패널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연쇄창업의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국내에서 연쇄창업 현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분석연구는 ICT 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Westhead et al.(2005)이 사용한 응답수치를 연쇄창업과 신진창업 간에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하고 단순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연쇄창업이 벤처기업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설문조사가 단면조사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연쇄창업의 성과를 계량모형으로 추정한다. Chen(2013)의 연구에서처럼, 단순회귀분석을 대조군으로 하고 고정효과모형, 도구변수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은 전산업 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과 같은 혁신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창업가 개인을 분석단위로 오랜 기간 추적하

였기 때문에 연쇄창업의 정량적 성과를 파악하기에 우수한 자료이다.

제 2 절 ICT 벤처기업 설문조사 분석

창업초기 벤처기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연쇄창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본다. 모집단은 2015년 현재 정부의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창업 3년 이내 ICT 기업으로,¹⁴⁾ 창업 3년 이내로 선택한 이유는 창업경험 효과의 지속기간이 3~4년 이내인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Parker, 2013). 설문조사는 2015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전화와 방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300개 표본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¹⁵⁾

〈표 3-1〉은 응답기업의 특성을 업종과 창업년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패키지SW에 98개로 가장 많은 수의 벤처기업이 있고, 그 외 전자부품제조업,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분야에 각각 51개, 49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제작업의 수는 각각 15개, 12개로 약간 저조하지만, 국내 ICT 벤처기업 모집단을 반영하여 제조업,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이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표본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업년도로 보면, 2012년에 창업한 기업의 수가 181개, 2013년 110개, 2014년 9개 순인데, 정부의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시간과 비용 때문에 최근일수록 표본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14) 벤처기업은 기술기반의 혁신적 서비스와 제품을 선보이는 창업기업을 뜻하는 일반용어로 영어권에서의 'technology-based new ventures(TBNVs)'나 'startups'과 같은 용어로 불린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에서 벤처기업인증을 부여하고 있어, 정부 인증을 받은 특정기업군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벤처기업 인증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부여되는데 핵심사항만 살펴보면, 1) 벤처캐피탈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한 기업, 2)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3) 기보·중진공으로부터 신용보증·대출을 8천만원 이상, 4) 기보·중진공으로부터 기술우수성을 인정받은 법인 설립 전 예비기업 등이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술력 혹은 사업 아이디어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모든 기술우수 창업기업들이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본 절에서는 혁신형 창업을 염두에 두어 기술우수성, 기업정보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군을 표본으로 삼았다.

15) 모집단, 표본구성, 조사표, 요약통계 등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유리 외 (2015)를 참조하라.

〈표 3-1〉 설문조사 응답기업 업종 및 창업년도

		표본수	비율(%)
주 업종	통신서비스	13	4.3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7	2.3
	통신기기	37	12.3
	방송기기	9	3.0
	정보기기	9	3.0
	전자부품	51	17.0
	정보통신융합기반기기	49	16.3
	패키지SW	98	32.67
	IT서비스	15	5.0
	디지털콘텐츠개발·제작	12	4.0
	전체	300	100.0
창업년도	2012년창업	181	60.3
	2013년창업	110	36.7
	2014년창업	9	3.0
	전체	300	100.0

설문조사는 크게 일반현황, 창업특성, 경영 및 재무 현황, 혁신활동, 협력활동, 입지현황, 정부지원 및 경영 애로사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3-2〉는 설문조사 각 부문의 대표적 항목을 나열한 것이다. 창업특성 부문에서 창업자가 창업경험이 있는지,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 몇 년간 창업활동을 했으며, 과거 창업 업종은 무엇이었는지, IPO, 기업매각, 폐업 등의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문항을 사용하여 응답기업이 연쇄창업인지 신진창업인지 구분하고, 두 그룹 간에 경영활동, 혁신활동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표 3-2〉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일반현황	업종, 창업년도, 성장단계 등
창업특성	단독/공동 창업 여부, 창업자 성별·연령·전공 창업경험 여부, 창업경험 있을 경우 활동년수, 업종, IPO/매각/폐업 경험 여부 창업자금조달 규모 및 방법 비중 등
경영 및 재무현황	인력현황, 주력시장, 매출구조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순이익 경영전략 중요도, 지분구조, 인수합병(M&A) 경험 여부 및 의향 등
혁신활동	혁신활동 유무, 주력제품/서비스 개발단계, 기술력 수준 혁신정보 원천, 혁신성과 보호방법, 혁신활동 저해요인 등
협력활동	다른 기업과의 협력관계 여부, 협력활동, 만족도 등
입지현황	입지 만족도, 비공식적 모임 참여 기회 유무 등
정부지원 및 기타	정부지원 여부 및 유형, 경영상 애로사항 등

1. 연쇄창업의 특성

먼저 표본에서 연쇄창업의 기초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300개 표본 중에서 창업자가 이전에 창업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56개로 약 18.67%의 벤처기업이 연쇄창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유사한 해외 연구에서 스코틀랜드 43.5%, 웨일즈 34%, 말레이시아 38%, 호주 49%, 노르웨이 31% 등의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Westhead et al, 2005). 창업활동년수는 응답을 거부한 2개 표본을 제외하고 54개 기업이 평균적으로 약 8년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업종별로 분류했을 때, 56개의 연쇄창업 중에서 11개(19.6%)의 기업이 ICT 산업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45개(80.4%) 기업은 같은 업종에서 재창업하였다. 연쇄창업가 중 IPO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무하였고, 2개(3.6%) 기업이 기업매각, 12개(21.4%) 기업이 폐업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회수시장이라고 알려진 IPO, M&A가 국내에서 활발하지 않으며, 연쇄창업가들이 기존 창업에서 퇴출이나 회수과정을 명확하게 거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쇄창업과 신진창업 간에 벤처기업의 경영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쇄창업의 특징적인 모습을 도출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창업특성을 〈표

3-3>에 비교하였다. 각각의 항목에서 신진창업과 연쇄창업의 평균을 표기하고, 두 평균의 차이를 t-검정하였다.

〈표 3-3〉 신진 및 연쇄창업 간 창업특성 비교

항목		신진창업	연쇄창업	t-검정 통계량(p-값)	유의성
공동창업여부		0.0861	0.2857	-4.2033(0.0000)	***
공동창업멤버 수(명)		3.05	3.50	-0.7522(0.4569)	
창업자금조달액(만원)		43,604	46,027	-0.2112(0.8329)	
창업자금 조달비중	창업자(%)	55.2	52.1	0.6307(0.5287)	
	벤처캐피탈(%)	0.3	2.8	-2.4398(0.0153)	**
	친구(%)	2.8	0.5	1.6957(0.0911)	*
	엔젤(%)	0.1	0.4	-0.9511(0.3424)	
	정책자금(%)	17.2	19.5	-0.5985(0.5500)	
	대출(기업)(%)	18.7	19.7	-0.2390(0.8113)	
	대출(개인)(%)	3.1	1.1	1.1929(0.2339)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첫째로,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에는 공동창업여부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진창업의 경우 약 8.6%만이 공동창업하였으나, 연쇄창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28.5%로 증가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수치로서, 과거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공동창업으로 창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공동창업하는 멤버수는 신진창업 평균 3.05명, 연쇄창업 3.5명으로 연쇄창업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쇄창업에서 공동창업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창업 경험을 통해 경영역량이 향상되어 여러 명의 공동창업가들이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형자산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역량은 기본적으로 인적 구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의 창업팀을 통해 기술, 영업,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창업가가 많을 경우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유연한 조직구조를 유지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경영역량이 중요하다. 과거 기업운영경험이 있는 연쇄창업가가 공동창업의 단점은 관리하고 장점을 끌어내는 역량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쇄창업에서 공동창업이 많은 이유는 재창업

의 어려움 때문일 수 있다.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국내 기업가들은 대표이사 2차 납세의 무, 신용불량, 연대보증에 의한 가족채무 등의 부담 때문에 다시 창업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과 함께 창업하는 구도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창업에서 오는 경영 이점 때문이 아니라 창업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다. 어느 요인이 더 우세할지에 대해서는 이후 성과분석에서 함의를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표 3-3〉에서 창업자금조달액은 신진창업의 경우 4.3억, 연쇄창업의 경우 4.6억으로 둘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창업자금의 원천이 어디인가는 두 그룹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유의수준 10%를 기준으로 유의한 것만 보면 벤처캐피탈의 비중이 연쇄창업의 경우에 더 높았고, 친구나 지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신진창업의 경우에 더 비중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연쇄창업가가 벤처캐피탈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더 유리한 것으로 해외연구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도 미약하나마 그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지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연쇄창업의 경우에 더 어려운 것은 이전 창업에서 발생한 주변인과의 경제적 마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이나 지인 자금조달이 전체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자금조달패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창업자 개인자금, 정책자금, 은행대출 측면에서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표에는 없으나 자금조달원천의 다양성을 Herfindahl-Hirschman index(HHI)로¹⁶⁾ 측정할 경우에도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자금조달규모와 방식은 두 그룹이 유사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표 3-4〉는 연쇄창업과 신진창업 간의 경영 및 재무특성을 비교한 표이다. 경영 및 회계특성으로 인력수, 설립 첫 해 자산규모와 당기순이익, 자산과 매출액 성장률, 주력시장, 경영전략, 인수합병 관련 사항을, 재무특성으로는 매출구조, 지분구조를 조사하였다. 인력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 인력수를 뜻하며, 주력시장은 국내, 중국,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의 응답보기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을 응답했는지를 측정하여 주력시장

16) 다양성이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곱하여 더한 값으로 구한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특정 항목의 쏠림이 심함을 나타낸다. 다양성의 경우에는 1-HHI로 지수화하여 1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을 얼마나 크게 설정하고 있는지 보았다. 경영전략은 1) 고기술을 통한 고품질 전략, 2) 비용절감을 통한 저가 전략, 3) 제품 다양성 전략, 4) 디자인 제고 전략, 5) 광고를 통한 차별화 전략, 6) 대량생산 전략의 6가지 전략적 특성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인수합병은 과거에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지, 타사를 인수합병할 의향이 있는지, 자사를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재무특성 중 매출구조는 대기업, 대기업 협력업체, 중소·벤처기업, 개인소비자, 정부, 해외의 매출비중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응답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 가족, 임직원, 벤처캐피탈, 타기업, 엔젤, 기타가 차지하는 지분구조 비중을 조사하였으며, 이 비중으로 HHI 지수를 계산하여 지분구조의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표 3-4〉를 보면, 총 인력수는 신진창업의 경우 9.36명, 연쇄창업의 경우 평균 10.71명으로 평균적으로 연쇄창업의 인력규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나, t-검정 결과에 의하면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얼마나 큰 규모로 시장에 진입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설립초해 자산규모로는 신진창업의 3.8억원에 비해 연쇄창업은 평균 6.6억원의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진입규모 외의 당기순이익, 자산성장률, 매출액성장률은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력시장의 수로는 신진창업 1.23, 연쇄창업 1.43으로 연쇄창업이 더 많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주력시장에 대한 응답을 좀 더 살펴본 결과, 신진창업 244개 중에서 202개, 즉 83%가 오직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연쇄창업의 경우에는 56개 중 42개, 75%가 국내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즉, 연쇄창업의 경우에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전략 중요성에서 각각의 전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양 기업군에서 고르게 고기술을 통한 고품질 전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벤처기업의 기술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대량생산 전략으로 신진창업은 평균 3.19, 연쇄창업은 평균 3.64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연쇄창업가는 대량생산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전략적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3-4〉 신진 및 연쇄창업 간 경영 및 재무특성 비교

항목		신진창업	연쇄창업	t-검정 통계량(p-값)	유의성
인력수(명)		9.36	10.71	-1.1644(0.2452)	
설립첫해 자산규모(천원)		383,935	658,605	-2.6514(0.0085)	***
설립첫해 당기순이익(천원)		-519	-12,123	0.5038(0.6148)	
자산성장률(배)		4.66	3.02	0.8781(0.3813)	
매출액성장률(배)		18.78	12.31	0.4077(0.6842)	
주력시장		1.23	1.43	-2.0272(0.0435)	**
경영전략 중요성	고품질	4.35	4.50	-1.3574(0.1757)	
	저가	4.11	4.07	0.3496(0.7269)	
	다양성	3.95	3.93	0.1445(0.8852)	
	디자인	3.70	3.66	0.2498(0.8029)	
	광고	3.41	3.54	-0.8911(0.3736)	
	대량생산	3.19	3.64	-2.7736(0.0059)	***
인수합병	경험여부	0.03	0.02	0.4524(0.6513)	
	인수의향	0.01	0.11	-3.8309(0.0002)	***
	매각의향	0.01	0.04	-1.6208(0.1061)	
매출구조 비중(%)	대기업	8.26	4.46	1.1458(0.2528)	
	대기업벤처	13.24	14.38	-0.2526(0.8007)	
	중소·벤처	44.14	35.80	1.3443(0.1799)	
	개인소비자	12.07	21.96	-2.1541(0.0320)	**
	정부	14.90	11.43	0.7503(0.4537)	
	해외	7.40	11.96	-1.3507(0.1778)	
지분구조 비중(%)	창업자	80.87	87.42	-1.8949(0.0591)	*
	가족	5.20	0.98	2.1893(0.0294)	**
	임직원	8.36	7.09	0.5329(0.5945)	
	벤처캐피탈	0.80	1.07	-0.3460(0.7296)	
	타기업	1.19	0.00	1.0728(0.2842)	
	엔젤	2.27	3.25	-0.7122(0.4769)	
	기타	1.30	0.18	1.3538(0.1768)	
지분구조 집중도		0.79	0.85	-1.9249(0.0552)	*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인수합병 경험은 두 그룹 모두에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고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인수합병과 매각의사에서는 두 기업군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진창업군은 다른 기업 인수합병 의향 비중이 1%에 불과했던 반면, 연쇄창업군은 11%의 기업들이 의향을 밝혔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또한, 자사를 매각할 의향 역시 연쇄창업군(4%)에서 신진창업군(1%)보다 높아, 창업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이 인수합병 시장에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출비율을 보면, 연쇄창업은 신진창업보다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정부로의 매출비중이 낮고, 개인소비자와 해외시장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소비자의 비중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신진창업의 경우 개인소비자 매출이 평균 12.07%에 그쳤으나 연쇄창업은 이 비중이 21.96%까지 상승하였고 그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지분구조를 보면, 연쇄창업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진창업보다 높은 창업자 지분구조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신진창업은 약 80%, 연쇄창업은 약 87%의 지분을 창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신진창업은 창업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5%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연쇄창업의 경우에 이 비중은 1%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지분구조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 지수를 계산한 결과, 신진창업(0.79)보다 연쇄창업(0.85)의 HHI 지수가 높게 나타나 창업자 지분의 쏠림 현상이 연쇄창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연쇄창업가들이 이전창업에서 회수한 자금의 여유가 있어 외부 자금조달을 적게 하는 것일 수 있고, 둘째 이전창업에서 가족이나 친지들과 경제적 마찰을 겪어 이들에게 지분투자를 받기 어려워진 현상일 수 있다.¹⁷⁾

다음으로 <표 3-5>는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의 혁신활동을 비교하였다. 혁신활동은

17) Vanacker et al.(2015)은 창업자금을 은행이나 지분투자 등 외부조달하지 않고 내부조달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서술하였다. 장점으로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효율성이 제고되고,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여 자금조달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며, 경영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투자이력이 없어 기업성장에 필요한 후속투자가 어렵고, 외부자금에 연계되는 경영지원이나 시장에 내보이는 신호효과를 얻지 못하며, 제한된 자금으로 인해 영업, 혁신 등 전략적 활동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크게 혁신활동 수행여부, 기술력 수준, 혁신 아이디어의 정보원천, 혁신 성과 보호 방법, 혁신 저해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혁신활동 수행여부는 내부 R&D, 공동 R&D, 외부 R&D, 장비구매, 지식구매 등을 조사하였는데, 두 그룹 모두에서 90% 가까운 높은 비율로 내부 R&D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공동 R&D, 외부 R&D는 각각 약 23%, 15% 정도로 그 수행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국내의 많은 벤처기업들이 혁신활동을 내부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80% 정도의 벤처기업이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함으로써 외부혁신을 흡수하였으나, 특허, 라이선스, 기술서비스 등의 지식구매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저조하였다. 다만,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에 혁신활동 수행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5〉의 기술력 비교 항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과 국내 최고수준의 기업으로 비교한 항목이다.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1) 세계 유일 기술, 2) 세계 최고와 유사, 3) 약간 미흡, 4) 미흡, 5) 열세로 응답하였다. 수치가 낮을수록 기술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세계수준과 비교했을 때, 연쇄창업군의 응답수치가 신진창업의 응답수치보다 낮아, 스스로 판단한 기술력 수준이 연쇄창업의 경우에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약하게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혁신 아이디어를 어디서 주로 얻느냐는 아이디어 정보원천 항목은 공급업체, 수요업체, 경쟁사, 대학/연구소 등이 있는데, 5점 척도로 각 원천의 중요도를 응답한 결과 평균적으로 고르게 3점 근처를 보였으며, 두 그룹간의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혁신의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는지를 나타내는 혁신전유방법으로는 지재산, 상표권, 사내기밀로 보호, 복잡한 설계방식 채택 등의 방식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4점 전후의 평균 응답을 보였으며, 역시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두 기업군 간의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특허 출원수와 등록수를 조사한 결과, 각 그룹에서 평균적으로 약 1.2개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 중 0.8개의 특허가 등록된 상태이다.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5〉 신진 및 연쇄창업 간 혁신활동 비교

항목		신진창업	연쇄창업	t-검정 통계량(p-값)	유의성
혁신활동 수행여부	내부 R&D	0.93	0.91	0.6255(0.5321)	
	공동 R&D	0.23	0.23	-0.0421(0.9664)	
	외부 R&D	0.15	0.16	-0.1694(0.8656)	
	장비구매	0.82	0.89	-1.3883(0.1661)	
	지식구매	0.10	0.05	1.0547(0.2924)	
기술력 수준	세계수준	3.11	2.88	1.6624(0.0975)	*
	국내수준	2.65	2.52	1.0523(0.2935)	
아이디어 정보원천	공급업체	2.96	3.13	-1.1133(0.2665)	
	수요업체	3.71	3.80	-0.7285(0.4669)	
	경쟁사	3.28	3.36	-0.5406(0.5892)	
	대학/연구소	3.00	2.80	1.2658(0.2066)	
혁신성과 전유성	지재권	4.10	3.86	1.6147(0.1074)	
	사내기밀	3.86	4.00	-1.0610(0.2895)	
	복잡한 설계	3.37	3.43	-0.4664(0.6413)	
특허	출원수	1.21	1.16	0.1098(0.9126)	
	등록수	0.84	0.75	0.3843(0.7010)	
혁신저해 요인	자금요인	3.74	3.71	0.2777(0.7814)	
	기업역량요인	2.91	3.21	-3.1902(0.0016)	***
	시장요인	3.22	3.29	-0.7301(0.4659)	
	필요요인	2.68	2.95	-2.1369(0.0334)	**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혁신활동 중 마지막으로 혁신저해요인은 몇몇 항목에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혁신저해요인 항목은 혁신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했다라도 성공적이지 못했던 요인을 다섯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자금요인은 내부, 외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얼마나 장애가 되었는지 물었으며, 기업역량요인은 인력부족, 기술정보부족, 시장정보부족, 혁신파트너 부재, 내부 조직 저항, 과거 혁신실패 등의 기업 내부의 역량부족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시장요인은 독과점 시장지배력 문제, 시장수요 불확실성의 문제를 측정하였고, 필요요인은 과거 성과 덕에 추가혁신이 필요 없는지, 내부적으로 혁신의 수요가 없는지를 질문하였다. 모든 응답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뜻한다. 혁신저해요인으로 자금요인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 벤처기업 혁신활동에서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요인은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에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쇄창업군은 혁신저해요인으로 기업역량요인과 혁신필요요인을 신진창업군보다 높게 응답하였는데, 그 차이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즉, 연쇄창업한 벤처기업은 혁신활동이나 혁신성과창출이 어려운 이유로 기업 내부의 역량이 부족하고, 기업 내부에서 혁신에 대한 수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연쇄창업가들이 신진창업가들보다 혁신활동의 장애요소를 기업내부에서 더 찾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그 동안 연쇄창업가가 내부요인을 등한시한다는 연구결과와 반하는 결과로 주목할 만하다. 몇몇 해외 연구결과에서 성공을 반복하는 연쇄창업가는 ‘초낙관주의(overoptimism)’를 보여 자신의 역량을 과신한다거나(Ucbasaran et al., 2010), 실패를 경험하는 연쇄창업가의 경우에는 실패원인을 내부적으로 찾기보다 외부 요인을 비난하는 경향을 보여 다시 실패를 반복하게 됨을 보였다(Eggers and Song, 2013). 하지만, 본 설문조사에서는 연쇄창업가가 신진창업가보다 내부요인을 장애로 꼽는 응답이 많이 연쇄창업가의 자기반성 기능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표 3-6>은 ICT 벤처기업의 협력활동 면에서 연쇄창업의 특이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내부 경영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벤처기업은 외부의 인력, 기업, 단체와의 효과적인 협력활동이 필요한데, 연쇄창업의 경우에 기존 창업에서 얻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활동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6>의 첫 번째 항목은 협력활동 여부를 설문한 것이다. 기업들에게 협력관계가 있는지 질문하면서, 1) 계약을 통한 공식적인 협력관계 위주, 2) 공식 협력관계와 비공식 교류 협력관계의 병행, 3) 비공식 교류 협력관계 위주, 4) 교류 없음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결과를 보면, 계약을 통한 공식 협력관계의 비율은 1)과 2)를 포함하여 약 35% 내외이며, 비공식 교류의 비율은 15% 정도, 협력관계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정도를 보이고 있다. 피어슨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신진창업군과 연쇄창업군 간에 협력관계 패턴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 중 절반 가까이 외부 조직과의 협력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그간 벤처기업의 외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룬 많은 이론,

실증적 연구에 비해서 협력관계가 저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표 3-5>에서 공동 R&D나 외부R&D를 수행한다는 비중이 각각 25%, 15% 내외로 신진과 연쇄창업 그룹간에 응답이 차이가 없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표 3-6> 신진 및 연쇄창업 간 협력활동 비교

항목		신진창업	연쇄창업	t-검정 통계량(p-값)	유의성
협력활동 여부(%)	공식계약	18.85	26.79	Pearson chi2(3) = 2.8909 (0.409)	
	공식+비공식	15.98	12.50		
	비공식교류	13.93	17.86		
	없음	51.23	42.86		
파트너별 협력활동 여부	공급업체	0.09	0.18	-1.8225(0.0694)	*
	수요업체	0.10	0.18	-1.6016(0.1103)	
	경쟁사	0.02	0.02	0.1266(0.8994)	
	대학/연구소	0.16	0.16	-0.0921(0.9267)	
	정부기관	0.52	0.41	1.4265(0.1548)	
	VC, 엔젤	0.02	0.04	-0.6788(0.4978)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다음으로 각 파트너와의 협력활동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3-6>의 파트너별 협력활동 여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신진창업의 경우 공급업체, 수요업체 등 전후방관계에 있는 조직과의 협력관계를 맺는 경우가 10% 이내인 반면,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52%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연쇄창업의 경우에는 18%에 이르는 기업들이 공급업체, 수요업체와 협력하며,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41%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협력파트너의 차이는 공급업체의 경우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유의하다. 대학/연구소와의 협력은 두 그룹간에 16%로 거의 동일하며, 경쟁사나 벤처캐피탈과의 협력관계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은 입지선정과 관련한 항목을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을 비교한 것이다. 좋은 입지를 선택함으로써 인력, 원자재 등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물류비용을 절약하며 최신의 기술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는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선택 중 하나이다.

〈표 3-7〉 신진 및 연쇄창업 간 입지선택 비교

항목		신진창업	연쇄창업	t-검정 통계량(p-값)	유의성
서울 여부		0.39	0.14	3.5122(0.0005)	***
입지 변경 여부		0.68	0.54	1.9948(0.0470)	**
현재 입지 만족도		3.78	3.82	-0.3585(0.7202)	
입지적 이점	시장근접성	3.64	3.73	-0.7997(0.4245)	
	원료근접성	3.36	3.63	-1.9895(0.0476)	**
	인력확보	3.47	3.46	0.0258(0.9794)	
	기술협력업체	3.47	3.59	-1.1601(0.2469)	
	공동연구기관	3.20	3.41	-1.6572(0.0985)	*
	정책지원	3.23	3.34	-0.8615(0.3897)	
	주거환경	3.14	3.32	-1.4587(0.1457)	
	학습기회	3.26	3.41	-1.2390(0.2163)	
	서비스인프라	3.30	3.45	-1.2665(0.2063)	
	혁신문화	3.17	3.41	-2.4929(0.0132)	**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먼저 서울에 입지했는지 여부를 비교하였다. 전체 표본의 지역을 광역시도로 측정한 결과 서울이 34%, 경기도가 35%의 입지선택을 보였는데, 지대 및 임대료, 인구밀도, 교통, 인력 등 국내 입지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가진 입지는 서울이라고 보아 서울에 입지하는가 여부를 보았다. 신진창업은 39%가 연쇄창업은 14%가 서울 입지 결정하여 두 그룹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연쇄창업의 경우에는 서울보다 주변지역인 경기(44%) 지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초기임에도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진창업의 경우 68%, 연쇄창업의 경우 54%가 창업 이후에 입지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광역시도를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지역 내에서의 이전으로 확인된다. 현재 입지의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두 그룹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떠한 이유로 입지를 선택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입지적 이점을 항목별로 조사하였다. 시장근접성, 원료근접성, 인력확보, 기술협력업체 근접성, 공동연구기관 근접성, 정책지원, 주거환경, 학습기회 우수성, 비즈니스 서비스인프라 우수성, 혁신 선호 문화로 나누어 입지적 이점의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기업그룹 간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원자재 및 부품공급업체와의 근접성, 공동연구 가능성, 혁신과 협력을 선

호하는 지역문화 항목에서 연쇄창업기업의 경우에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3-8>은 정부지원 현황을 비교한다. 이번 연구 표본에서 평균적으로 85%의 벤처기업이 정부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자금지원에 해당하였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융자를 일정 수준 이상 받았을 때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자금지원이 양 기업군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신진창업의 경우에 더 높은 비율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진창업 중 80%가 자금지원수혜를 받았으나, 연쇄창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68%로 감소하여 두 기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쇄창업군은 자금지원보다 판로/마케팅 지원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판로지원 수혜 비중이 신진창업은 10%가 되지 않으나, 연쇄창업기업 중 약 20%의 기업이 판로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표 3-8> 신진 및 연쇄창업 간 정부지원 비교

항목	신진창업	연쇄창업	t-검정 통계량(p-값)	유의성
자금 지원	0.80	0.68	2.0390(0.0423)	**
인력 지원	0.14	0.16	-0.3284(0.7428)	
장비 지원	0.05	0.07	-0.6665(0.5056)	
판로/마케팅 지원	0.09	0.20	-2.4285(0.0158)	**
공동연구개발	0.21	0.16	0.8131(0.4168)	
정보/교육 제공	0.06	0.07	-0.3981(0.6909)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2. 연쇄창업의 성과분석

앞서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의 행태의 차이점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는데, 이번에는 연쇄창업이 신진창업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쇄창업가가 경험의 누적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이것이 벤처생태계

에 기여한다는 통념이 있으므로, 그들의 성과가 실제 더 우수한지 실증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앞서의 표들에서 연쇄창업이 신진창업보다 이익, 성장률, 특허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쇄창업의 성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벤처기업의 성과변수로 설립 첫 해의 당기순이익(변수명 firstprofit)과 2013년부터의 최근까지의 특허출원수(변수명 patent_af13)를 사용하였다. 당기순이익과 특허출원수는 객관적 정량자료로서 각각 회계자료와 특허자료에서 얻어진다. 당기순이익은 재무적 성과, 특허출원수는 기술적 성과의 지표로 볼 수 있다.¹⁸⁾ 특허출원은 해당 벤처기업과 대표이사 이름으로 출원된 특허를 조사하였는데, 2013년 이후의 출원건과 2013년 이전의 출원건으로 구분하였다. 성과분석에서는 벤처기업 설립 이후인 2013년 이후의 출원건이 사용된다. 특허가 출원 이후 등록까지 평균적으로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의 성과로 등록보다는 출원 정보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연쇄창업 여부를(0,1)로 변수화하였으며(변수명 serial), 통제변수는 성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였다. 재무적 성과 분석의 통제변수로 설립 첫해 자산규모(firstsize), 공동창업여부(cofound), 주력시장의 수(market), 특허출원수(patent), 정부지원여부(government), 연쇄창업시 업종 변경 여부(industry_change)를 사용한다. 기술적 성과인 특허출원수 추정 모형의 통제변수는 공동창업여부(cofound), 주력시장의 수(market), 혁신결과물 보호방법의 효과성(appropriability),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여부(univ_coop), 정부지원여부(government), 기업연령(age) 등으로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행동 특성을 통제한다. 또한, 창업자의 특허출원경향(propensity to patent)을 통제하기 위하여 2013년 이전의 특허출원수(patent_bf13)를 포함시켰다.

다음의 <표 3-9>는 회귀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표시한 것이다. 관측수는 전체 표본 300개 중 해당 변수의 관측수를 의미하며, 모형 추정시에는 변수마다 응답여부가 다르므로 이보다 같거나 더 적은 관측치를 사용하게 된다. 연쇄창업시에 산업을 변

18) 창업초기 불명확한 재무정보로 인해 설립 첫해의 당기순이익을 성과변수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설립 다음 해의 당기순이익, 설립 첫해의 영업이익, 설립 다음 해의 영업이익을 종속변수로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도 분석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industry_change)는 연쇄창업에만 발생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후 모형에서는 연쇄창업여부(serial) 변수와 교호항으로서만 사용된다.

〈표 3－9〉 설문조사 회귀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설명	관측수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firstprofit	설립 첫 해 당기순이익(천원)	277	-1,005	-2,739	150,577
patent	특허 출원 전체	300	1	2.38	5.25
patent_af13	2013년 이후 특허출원수	300	0	1.20	3.21
patent_bf13	2013년 이전 특허출원수	300	0	1.18	3.23
serial	연쇄창업 여부	300	0	0.18	0.39
cofound	공동창업 여부	300	0	0.12	0.33
firstsize	설립 첫 해 자산규모(천원)	280	189,383	436,907	691,285
market	주력시장 수 ⁽¹⁾	300	1	1.26	0.68
government	정부지원 수혜 여부	300	1	0.85	0.36
appropriability	혁신결과물 보호 효과성(5점측도)	300	3.50	3.60	0.67
univ_coop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 여부	300	0	0.15	0.36
firmage	2015년 현재 기업 나이	300	3	2.57	0.55
industry_change	연쇄창업시 산업변경 여부	56	0	0.19	0.40

주: 1) 국내, 중국,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중 선택한 개수를 의미

먼저, 재무적 성과인 설립 첫해의 당기순이익에 연쇄창업이 미치는 효과를 단순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OLS)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3－10〉에 표시하였다. 모형(1)은 독립변수로 연쇄창업여부(serial), 공동창업여부(cofound), 초기자산규모(firstsize), 주력시장수(market), 특허출원수(patent), 정부지원여부(government)를 사용하였으며, 모형(2), (3), (4)는 각각 이들 독립변수와 연쇄창업여부 간의 교호항을 추가하였다. 교호항으로 추가한 변수들로는 앞서 신진창업과 연쇄창업 간의 비교분석에서 연쇄창업을 특징으로 확인되었던 것들로 업종변경여부, 공동창업여부, 주력시장의 수를 사용하였다.

〈표 3－10〉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쇄창업여부(serial)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모형(4)의 경우에는 음의 계수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쇄창업한 벤처기업의 설립 첫해 당기순

이익은 신진창업기업보다 오히려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창업경험이나 노하우가 새로운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10〉 연쇄창업의 재무적 성과 분석—당기순이익 단순회귀분석 추정결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serial	-8713 (23651)	9462 (25604)	-28022 (28445)	-80761* (45307)
cofound	13997 (27476)	10532 (27428)	-50972 (34526)	-51166 (34448)
firstsize	0.0197 (0.0131)	0.0208 (0.0131)	0.0231* (0.0129)	0.0232* (0.0129)
market	-45168*** (13470)	-44277*** (13423)	-46282*** (13264)	-61951*** (16889)
patent	-3650** (1636)	-3665** (1629)	-3388** (1611)	-3371** (1607)
government	-37427 (25220)	-32076 (25288)	-30949 (24958)	-31592 (24904)
industry_change		-93613* (51733)	-81602 (51223)	-86456* (51209)
serial X cofound			159672*** (55649)	155623*** (55587)
serial X market				40232 (26942)
constant	86628*** (28761)	80820*** (28820)	85970*** (28497)	105642*** (31335)
관측수	277	277	277	277
F-검정 값	3.67***	3.64***	4.30***	4.09***
adjusted R ²	0.0548	0.0627	0.0872	0.0914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표 3-10〉에서 연쇄창업여부 자체는 재무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4)의 추정결과를 보면, 연쇄창업여부는 다른 독립변수의 조절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연쇄창업시에 업종을 변경했는지 여부(industry_change)를 살펴

보면, 유의수준 10%에 유의한 음의 계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업종을 변경할수록 이익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정량적으로 해석하면 업종을 변경하여 연쇄창업했을 경우 설립첫해에 8~9천만원의 초기 손실로 이어진다. 둘째로, 연쇄창업하면서 공동창업했을 경우 초기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 (4)에서 연쇄창업(serial)과 공동창업(cofound) 변수의 교호항을 보면, 1% 이내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었다. 계수를 해석하면, 여러 명이 공동창업 형태로 연쇄창업한 경우 첫째 당기순이익이 약 1.5억원 상승한다. 셋째, 연쇄창업하면서 주력시장을 증가시킨 경우는 재무성과에 양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일반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써, 연쇄창업 자체는 벤처기업의 초기 재무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연쇄창업하면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무성과가 하락하며 여러 명이 공동창업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업종변경과 관련된 결과는 연쇄창업에서 얻어지는 경험이 업종고유의 지식에 한정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예전 사업에서 얻어진 경험, 지식,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진창업가보다 낮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공동창업에서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창업경험에서 얻어진 경영지식과 노하우로 창업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각 창업멤버의 역량을 끌어내고 조정할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연쇄창업에서 얻어진 경험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만 연쇄창업은 성과로 이어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쇄창업 자체는 벤처기업의 초기 재무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외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설립 첫해 자산규모(firstsize)는 당기순이익에 약하지만 양의 영향을 보이고, 주력시장의 수(market)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계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허출원수(patent) 역시 재무성과에는 음의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부지원여부(government)의 계수는 음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다. 따라서 초기에 큰 규모로 진입하고 적은 수의 시장에 집중하며 특허출원을 덜 할수록 높은 벤처기업이 높은 재무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3-11>은 벤처기업의 기술적 성과지표인 특허출원수와 연쇄창업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이다. 특허출원수는 0 이상의 가산자료이므로 음이항회귀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음이항회귀모형은 분산이 평균보다 큰 분포성향을 보이는 가산자료를 추정하는 데

에 적합하며, <표 3-11>의 맨 아래 행에 표시한 alpha 값이 0에서 벗어날수록 모형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이번 연구는 산포가 큰 것으로 알려진 특허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어 음이항회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표 3-11>의 모든 모형에서 alpha 값이 0.1% 이내 유의수준에서 0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평균과 분산이 같은 포아송분포를 사용하는 것보다 음이항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3-11>의 추정결과를 보면, 가장 먼저 연쇄창업변수(serial)가 모든 모형에서 음의 계수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표 3-11>의 재무적 성과 추정에서 호호했던 것과는 달리, 연쇄창업여부는 벤처기업의 초기 기술성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연쇄창업이 특허출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연쇄창업일수록 기술적 성과보다는 재무적 성과에 더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생계형이 아닌 기술창업일수록 기술적 성과에 주안점을 두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이익률, 생존 등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창업경험이 있는 기업가일수록 기술적 성과보다는 기업의 이윤과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일 수 있다.

<표 3-11> 연쇄창업의 기술적 성과 분석－특허출원수 음이항회귀분석 추정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serial	-0.4454* (0.2583)	-0.4422 (0.2776)	-0.5755* (0.3064)	-0.5861* (0.3114)
cofound	-0.0665 (0.2910)	-0.0675 (0.2926)	-0.0492 (0.2927)	-0.0574 (0.2957)
firstsize	4.93e-08 (1.30e-07)	5.07e-08 (1.37e-07)	-1.01e-07 (2.03e-07)	-1.01e-07 (2.03e-07)
market	0.1190 (0.1458)	0.1192 (0.1460)	0.1070 (0.1457)	0.1055 (0.1459)
patent_bf13	0.1570*** (0.0326)	0.1571*** (0.0327)	0.1526*** (0.0323)	0.1520*** (0.0323)
government	0.1565 (0.2783)	0.1571 (0.2789)	0.1452 (0.2784)	0.1451 (0.2783)
appropriability	0.0848 (0.1508)	0.0858 (0.1537)	0.0683 (0.1538)	0.0671 (0.1539)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univ_coop	0.3939* (0.2368)	0.3948* (0.2385)	0.3689 (0.2386)	0.3490 (0.2589)
firmage	-0.1375 (0.1663)	-0.1370 (0.1671)	-0.1578 (0.1678)	-0.1570 (0.1677)
industry_change		-0.0191 (0.5987)	-0.1683 (0.6254)	-0.1944 (0.6414)
serial X firstsize			2.79e-07 (2.75e-07)	2.69e-07 (2.80e-07)
serial X univ_coop				0.1322 (0.6749)
Constant	-0.3782 (0.6955)	-0.3843 (0.7215)	-0.1766 (0.7474)	-0.1671 (0.7488)
관측수	280	280	280	280
LR X^2	48.10***	48.10***	49.13***	49.17***
Pseudo R^2	0.0566	0.0566	0.0578	0.0579
alpha	1.2348***	1.2351***	1.2191***	1.2178***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두번째로 가능한 설명은 연쇄창업가일수록 기술 혁신의 결과를 특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일 수 있다. 혁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를 보호하는 방법은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면서 동시에 공개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로 하거나,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빠르게 시장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제약, 화학 등의 분야에서 더 선호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표본은 기술변화가 심한 ICT 산업의 벤처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보다는 비밀보호의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산업의 특성을 잘 알게 된 연쇄창업가가 특허출원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설 모두 공통적으로 연쇄창업가는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의지가 강한 반면에, 신진창업가는 특허를 출원하여 기술적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11>에서 기술성가에 영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 설립 이전인 2013년 이전에 출원한 특허의 수(patent_bf13)로, 이는 기존에 특허출원을 많이 하던 경향이 있는 대표이사가 설립한 기업일수록 많은 특허를 출원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허출원경

향(propensity to patent)은 또한 축적된 기술지식을 발판으로 더 많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술의 누적성(accumulativeness)과도 연관된다.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여부 변수(univ_coop)이 양의 계수를 보여, 대학이나 연구소와 기술협력하는 벤처기업일수록 특허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다루는 지식의 속성상 새로운 원천기술의 발굴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연구프로젝트의 성과 측정 지표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외의 공동창업여부(cofound), 진입 초기의 자산규모(firstsize), 주력시장의 수(market), 정부지원여부(government), 혁신보호 효과성(appropriability), 기업의 나이(firmage), 업종변경여부(industry_change) 등은 벤처기업의 설립 초기 기술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창업여부(cofound), 업종변경여부(industry_change)가 부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의견 조정의 어려움과 업종변경의 어려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관례적인 수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소결

정부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창업 3년 이내 ICT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연쇄창업의 경영행태와 성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12〉 연쇄창업의 설문분석 결과 요약

구분	분석결과
경영행태	1)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공동창업하는 비중이 높다. 2) 상대적으로 큰 자산규모로 시장에 진입한다. 3) 해외시장을 공략하려는 경향이 있다. 4) 대량생산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경영전략을 중요시한다. 5) 인수합병에 더 적극적이다. 6) 기업, 정부보다 개인소비자 매출 비중이 높다. 7) 창업자 지분이 높다. 8) 혁신활동의 장애요인이 내부역량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구분	분석결과
경영행태	9) 공급업체, 수요업체와 더 협력하고 정부와의 협력 비율은 낮다. 10) 입지 선택에서 원자재 근접성, 공동연구 가능성, 혁신문화를 더 중시한다. 11) 정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의 비중은 낮고, 판로/마케팅 지원 비중이 높다.
경영성과	1) 연쇄창업 자체는 벤처기업의 초기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연쇄창업하면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재무성과가 하락한다. 3) 연쇄창업하면서 여러 명이 공동창업하는 경우 재무성과가 상승한다. 4) 연쇄창업 자체는 벤처기업의 초기 기술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경영행태와 성과와 관련한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ICT 분야 연쇄창업의 경우에는 기술보다 시장과 수익에 더 중점을 두어 창업한다고 볼 수 있다. 큰 자산규모로 시장에 진입하고, 주력시장을 확대하며, 대량생산 전략을 취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보다 판로개척 면에서 지원을 받는 등 시장성 위주의 경영전략행태를 보인다. 이에 따라 연쇄창업은 특허와 같은 기술적 성과보다는 재무적 성과에 더 큰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장지향적 행태는 제2장의 <표 2-5>에서 실패유형 분석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2-5>에서 실패원인의 1, 3 순위로 창업아이템 검증 미흡, 수익모델 부재, 마케팅 실패, 판로 미개척 등이 꼽히기 때문이다. 시장성의 부족으로 실패를 겪은 창업가들이 이후의 재창업시에 기술성보다 시장성에 주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러 명이 공동창업하고, 창업자 지분을 높이며, 내부 역량에 집중할 뿐 아니라 외부협력은 줄이되 원자재 공급업체, 수요업체 등 공급망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지난 창업 경험을 통해 경영역량을 향상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쇄창업가는 축적된 경영역량을 활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이는 공동창업으로 이어지며 재무성과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기존 경험과 노하우는 특정 영역에 한정하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쇄창업이 성과를 보이기 어렵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해외 연구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연쇄창업 자체가 벤처기업의 창업초기 재무 및 기술 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표본이 정부의 인증을 받는 벤처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신진창업가라 하더라도 벤처인증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성, 기술성 측면에서 역량별로 스크리닝되었을 수 있다. 때문에, 창업경험이 이후의 사업수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좀 더 다양한 표본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업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쇄창업시에 업종 유지가 필요하다는 등의 최근 연구 결과에는 상당히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연쇄창업가의 행태와 성과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먼저, 단면 설문조사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 는 상관관계로 해석해야하며, 인과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위의 연구결과는 연쇄창업과 신진창업 간의 차이점, 연쇄창업과 성과 간의 통계적 관계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다음 절에서 노동패널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데, 설문문항의 다양성은 부족하나 인과관계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성과분석에 있어서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고 정량자료의 변화가 심해 다른 자료나 분석방법으로 계량추정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5년 후의 생존율, 성장률, 재무 및 기술 성과를 본다면 벤처기업의 성과로 좀 더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제3 절 한국노동패널 분석

이번 절은 한국노동패널분석을 통해 연쇄창업의 결정요인과 성과를 분석한다. 노동패널 자료는 장기간 누적 자료이기 때문에 앞서 단면설문조사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내생성(endogeneity)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왜 연쇄창업하는가”, “연쇄창업의 성과가 더 좋은가”라는 주제를 다룬 연구에서 창업가 본연의 자질, 즉 경영능력, 기술역량 등을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우수한 창업가가 경험 때문이 아니라 자질 때문에 연속해서 창업하게 되고 이후 좋은 성과를 내는 현상이 경험효과와 섞여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험효과(learning by doing)와 자기선택효과(self-selection)를 분리한 분석이 요구된다. 앞서의 창업초기 벤처기업 설문조사를 예로 설명하면, 공동창업자들과의 의견 조율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창업자들이 선택적으로 연쇄창업을 결정하게 되고 이들이 연쇄창업의 성과를 증가시킨다면, 연쇄창업가들이 경험을 통해 조직 구성원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앞서 분석 결과는 편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자기선택편의(self-selection bias)가 두드러진다면, 연쇄창업은 개인의 자의적 선택일 뿐 경험자산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으며, 개인 경험의 사회적 자산화라는 정부의

연쇄창업 지원 당위성이 퇴색된다. 따라서 연쇄창업의 성과 분석에서 자기선택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정책지원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생성 통제 면에서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 절에서는 패널자료를 통해 연쇄창업의 성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한국노동패널 자료 및 변수 설명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는 한국의 거주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 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이다.¹⁹⁾ 1998년에 첫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총 17년간의 자료가 누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정리가 용이한 15년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²⁰⁾

1998년 첫 조사에서의 패널표본은 5,000가구이며 이 가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가구원이 분가하더라도 새로운 가구로 추적한다. 1998년의 첫 표본은 당시 도시 거주 가구와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먼저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에서 5가구를 임의추출하는 2단계 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 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9년 전국의 가구를 모집단으로 확장하여 표본을 추가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구를 표본틀로 하여 조사구를 확률비례추출하고 각 조사구에서 5개의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임의추출하여 1,415 가구가 표본에 추가되었다. 1998년 표본은 5,000가구이며, 2009년 이후의 통합표본은 6,721가구로 구성된다.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지와 가구원용 설문지 2가지로, 개인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구성원을 조사대상자로 한다. 가구용 설문지의 경우 가족관계, 주거, 교육, 소득, 소비와 저축, 자산과 부채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용은 미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 노동유형에 따라 설문지가 나뉘는데, 전반적으로는 일

19) 패널조사에 대한 설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http://www.kli.re.kr/klips>)에서 인용하였다.

20) 제15차 조사까지의 기초분석 보고서는 이상호 외(2014)를 참고하라.

자리의 기본정보, 근로계약 혹은 자영업일 경우 사업체 정보, 근로시간, 수입,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을 묻게 된다. 그 외에 교육, 혼인상태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Chen(2013)의 논문을 참고하여 개인이 연쇄창업하게 되는 결정요인과 연쇄창업의 성과를 분석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연쇄창업의 측정이다. KLIPS에서 경제활동유형은 크게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으로 나뉘고, 취업자의 경우에 다시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어있다. 이러한 분류체계에서 이전 년도까지 자영업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해당 년도에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았다. 연쇄창업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째는 한 번 이상 자영업으로 보고한 이후에 미취업, 임금근로자 등 자영업 이외의 유형을 보였다가 다시 자영업이 된 경우, 둘째는 연속적으로 자영업으로 보고하였는데 업종이 바뀐 경우이다. KLIPS는 1년 단위로 자료가 누적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여러 번 창업과 퇴출을 반복한 경우를 판별하기가 어렵다. 다만, 업종이 바뀐 경우에는 재창업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한하여 연쇄창업이라고 보았다. 창업이 여러 번 반복되려면 충분한 시간 동안 꾸준한 관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5년 동안 빠짐없이 조사에 응답한 개인을 표본으로 택하였다. 그 결과, 총 4,286명의 표본에서 1,552명이 한 번 이상 자영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중 452명이 두 번 이상의 창업 경험이 있어 창업자 경력이 있는 자의 약 29.1%가 재창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문조사의 18.7%보다 높은 수치이나, KLIPS의 자영업자는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인 외에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전 창업 경험의 효과가 이후 연쇄창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연쇄창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둔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는 두 가지를 구성하였는데, 첫째는 개인을 조사년도별로 분리한 후 재창업 여부를(0, 1) 변수화하여 한 번 창업한 이후에 다시 재창업 여부를 측정한다. 이 이진변수(변수명 id_ss)가 연쇄창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의 종속변수가 된다. 둘째로, 연쇄창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는 재창업 후 첫 해의 월간 평균 소득을 성과변수로 삼았다(변수명 F_inc). 창업이후의 시간이 길어지면 경험의 효과가 이전 사업에서의 효과와 현재 사업에서의 효과가 섞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성과인 첫해의 소득을 사용한다. 다만, 첫해의 월평균 소득 데이터가 없을 경우 둘째 해의 소득을 재창업의 성과로 보았다. 연쇄창

업의 성과는 재창업이 이루어진 표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요인 분석보다 훨씬 적은 수의 관측치를 사용하게 된다.

연쇄창업 결정요인과 재창업했을 때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사업경험과 그 사업의 운영성과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로 KLIPS로부터 세 변수를 구축하였다. 첫 번째 변수(변수명 S)는 처음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한 후 재창업 직전까지 자영업 운영 중의 월 평균 수익이다. 창업에 의해 얻어지는 경험만을 추출하기 위해 이 변수에서 임금근로소득은 제외하였다. 두 번째 변수는 누적 자영업 운영횟수(변수명 CYSE: cumulative year of self-employed),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전년도까지 자영업 창업횟수(변수명 NB: Number of Business)이다. 이 세 가지 변수는 각각 이전 사업의 성과경험(S), 사업년수(CYSE), 사업횟수(NB)를 뜻하여 개개인의 사업경험을 나타내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이 의미를 가지려면 독립변수와 오차항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지만, 잠재적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관측불가능한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쇄창업의 경우에는 연쇄창업가의 자기선택효과가 그러하다. 이와 같은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IV: Instrument Variable)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IV는 독립변수인 사업경험이나 그 사업의 운영성과에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종속변수인 연쇄창업 결정여부나 재창업 후 성과와는 수직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가의 자질은 종속변수인 재창업의 사업성과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독립변수인 자영업 운영 중의 평균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업가 자질의 영향을 독립변수로부터 제거한 후 회귀분석을 하여야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창업가의 타고난 자질을 반영할 수 있는 도구변수로 노동시장 진입 후 얻은 첫 소득(변수명 innate)과 첫 자영업을 시작한 나이(변수명 FA)를 사용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처음으로 얻은 소득(innate)은 개인의 역량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적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경험의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KLIPS에서는 첫 노동형태가 임금근로자였을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 자영업이었을 경우에는 월평균 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첫 자영업의 경우 KLIPS 원시데이터에서 소득에 대한 응답률이 상당히 저조하여, 첫째 소득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첫 자영업에서 관측되는 첫 소득을 사용하였다. 자영

업 시작 나이(FA) 역시 각 개인이 자영업에 적합한 자질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좋은 도구변수라고 여겨진다. 일찍 자영업에 진입했다면 사업적 재능이 더 높았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첫 자영업의 나이는 경험 효과가 배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KLIPS는 15년 동안 조사하여 구축한 패널 데이터이고 모든 소득 데이터는 명목소득이다. 따라서 사업의 실질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에 기인한 증가분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 데이터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이용하여 물가상승률을 조정 한 후 로그를 취하였다. 로그를 취하기 전 소득의 단위는 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여섯 개의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였는데, 10분위 가구소득(h_incomeq), 교육수준(p_edu), 나이(p_age), 성별(p_gender), 배우자유무(p_married), 경기침체기(Rec) 등이다. 10분위 가구소득(h_incomeq)은 1~10까지의 서수형 변수로 각각의 분위를 나타내며, 교육수준(p_edu)은 1=무학, 2=고졸 미만, 3=고졸, 4=대학재학, 5=대학졸업, 6=대학원 이상의 서수형 변수이다. 성별은 남자인 경우,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1 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이다. 경기침체기 변수(Rec)는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침체기를 사용하였는데,²¹⁾ 노동패널 내에서 1998년, 2003년, 2004년, 2008년, 2011년, 2012년의 경우에 1로, 그 외에는 0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또한 산업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8차 한국표준산업코드에 따라 농·임업(A), 어업(B),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수도사업(E), 건설업(F), 도·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N),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M), 교육서비스(O), 보건 및 사회복지업(P), 오락·문화(Q), 기타(R) 등 대분류 산업별로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다음의 <표 3-13>은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초통계량을 구함에 있어 해가 바뀌어 독립변수가 변하게 되는 경우 다른 개체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관측수가 실제 조사에 응한 사람보다 많을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년에 걸쳐 모두 응답한 경우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5개의 관측치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변수의 특성 상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므로 관측치가 모든 변수에

21) <https://research.stlouisfed.org/fred2/series/KORRECD>

서 일치하지는 않는다.

〈표 3-13〉과 같이, 한 번 이상의 창업 경험이 있는 자의 15년의 조사기간 동안 이전 해까지 월 평균소득(S)은 중앙값 기준으로 136만원(2010년 기준),²²⁾ 자영업 운영 횟수(CYSE)는 2년, 창업 횟수(NB)는 1회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은 관측치의 51%가 남자이고, 81%가 배우자가 있으며, 평균 나이는 50세, 절반 이상의 창업가들이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다.

〈표 3-13〉 노동패널 회귀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설명	관측수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S	이전까지 총 자영업 기간 중 월 평균소득의 로그값	10,742	4.915	4.773	0.904
F_inc	현 자영업의 첫해 월 평균 소득의 로그값	488	5.040	4.875	1.030
CYSE	이전까지 총 자영업 운영 년수	14,400	2	3.364	3.209
NB	이전까지 총 창업 횟수	14,400	1	1.258	0.560
h_incomeq	10분위 가구소득	14,195	6	5.604	2.797
p_age	나이	14,400	50	50.741	13.232
p_sex	성별(1=남성, 2=여성)	14,400	1	0.511	0.500
p_edu	교육수준 ⁽¹⁾	14,400	3	2.953	1.350
p_married	배우자유무	14,397	1	0.809	0.393
Rec	경기침체기 ⁽²⁾	14,400	0	0.467	0.499

주: 1) 1=무학, 2=고졸미만, 3=고졸, 4=대학재학, 5=대학졸업, 6=대학원 이상

2) 1998년, 2003년, 2004년, 2008년, 2011년, 2012년은 침체기

2. 연쇄창업의 결정과 성과

먼저 대조군으로써 모델에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않은 간단한 모형으로 연쇄창업의 결정과 성과를 추정하고, 이후에 개인의 역량을 통제하는 고정모형을 추가하여 대조군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간단분석에서 결정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t regression)을,

22) S는 $\log(100 \times \text{명목임금}/\text{CPI}_{2010})$ 며, 중앙값은 4.915로 이를 자연로그로 환산하면 136.31이다. 즉, 자영업자 상위 50%의 월평균 사업소득이 약 136만원이다.

성과는 단순선형회귀모형(ordinary linear regression; OLS)를 사용하며, 고정효과 분석은 조건부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regression)과 고정효과 선형회귀(fixed-effect OLS)를 사용할 것이다. 조건부로짓과 고정효과선형모형은 모두 개인을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추가된 형태로, 개인의 타고난 자질, 역량과 같은 특성을 통제하게 된다. 연쇄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을 통제하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시간별로 변하지 않는 개인특성변수, 예를 들어 성별과 같은 변수가 회귀모형에서 탈락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구변수 회귀분석(IV regression)을 통하여 내생성 통제 후의 분석 결과를 보였다.

〈표 3-14〉는 창업의 경험이 이후 또다른 창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단순 로짓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종속변수(id_ss)는 재창업을 하였을 경우 1로 표현된다. 따라서 창업 경험이 없거나 첫 자영업 운영을 조사기간 내내 운영을 하였다면 관측치에서 제외가 된다. 그 결과 689명으로부터 3,431개의 관측치를 얻었다. 모형은 창업의 경험을 나타내는 독립변수에 따라 네 가지 다른 모형을 가정하였다. 모형(1)은 이전년도까지 자영업 운영 중의 월 평균 소득(S)을 사용하였고, 모형(2)에서는 이전년도까지 총 자영업 창업횟수(NB)를, 모형(3)에서는 S와 총 자영업 운영 햇수(CYSE)를, 모형(4)에서는 S와 NB를 사용하였다.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a)을 비롯하여 Pseudo-R square 값이나 우도에 따르면 모형(4)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와 같이 창업의 경험이 당해 재창업의 확률을 높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창업 경험을 반영하는 변수들, S 와 NB, 그리고 CYSE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양의 값을 갖는다. 특히 NB는 다른 두 변수와 비교해 재창업 경향에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모형(4)에 의하면 다른 모든 변수가 평균값에 있을 때, 과거 사업 운영 중의 평균 소득(S)이 1% 증가하면 당해 창업을 할 확률은 약 1.26% 증가하고, 창업 경험이 1회 더 많을 경우에는 창업 확률을 11.9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3)에 의하면 역시 다른 모든 변수가 평균값에 있을 때, 사업가로서의 경력이 1년 늘어나면 약 1.42% 창업 확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창업을 할 확률이 높고, 경기침체기에는 재창업의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창업에 대한 경기침체기의 영향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데, 한계효과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인 경

우 경기침체에 창업 확률이 약 5.34% 하락하는 반면, 소득 상위 10%는 2.64%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창업에 있어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경기변동의 영향이 작음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은, 자영업 경험만큼 일관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남자일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재창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4〉 연쇄창업 결정요인 로짓모형 추정결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S	0.3490*** (0.0786)		0.2240** (0.0813)	0.2410* (0.0970)
CYSE			0.1640*** (0.0195)	
NB		2.2950*** (0.1070)		2.2850*** (0.1070)
10분위 가구소득	-0.0913*** (0.0227)	-0.1060*** (0.0266)	-0.0974*** (0.0231)	-0.1210*** (0.0272)
나이	0.0108 (0.0060)	-0.0092 (0.0072)	-0.0027 (0.0064)	-0.0072 (0.0073)
성별	0.366** (0.1290)	0.2720 (0.1460)	0.1990 (0.1330)	0.1530 (0.1540)
교육수준	0.0802 (0.0468)	-0.0890 (0.0576)	0.0669 (0.0476)	-0.1080 (0.0581)
배우자유무	0.3560* (0.1510)	0.0451 (0.1800)	0.3490* (0.1520)	0.0541 (0.180)
Rec	-0.2540* (0.1070)	-0.5680*** (0.1320)	-0.3970*** (0.1110)	-0.5780*** (0.1320)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Constant	-4.8140*** (0.5770)	-4.430*** (0.5340)	-3.8430*** (0.5930)	-5.4940*** (0.6910)
관측수	3431	3431	3431	3431
우도	-1199.7	-839.9	-1164.6	-836.8
Pseudo R ²	0.132	0.392	0.157	0.394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표 3-15〉는 이전 사업경험이 미치는 연쇄창업의 성과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재창업 후 첫 해의 월 평균 소득(F_inc)을 종속변수로 놓고 창업 경험의 영향을 분석한 단순 회귀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이 경우, 재창업을 한 해 혹은 다음 해의 소득이 관측이 되어야 하므로 샘플 수는 단순 로짓모형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348명으로부터 441개의 관측치를 얻었다. 단순 회귀분석에는 사업경험을 반영하는 세 변수의 조합 중에서 정보기준을 통해 상위 네 개의 조합을 독립변수로 넣어 구성하였다. 모형(1)에서는 S를, 모형(2)에서는 S와 CYSE를 모형(3)에서는 S와 NB를 모형(4)에서는 S, CYSE, 그리고 NB 모두를 포함하는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과거 자영업 운영 중의 사업성과(S)가 재창업 후의 초기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변수를 포함하는 네 모형에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가진다고 추정되었다. 즉, S가 10% 증가할 때, 이후 자영업 첫 소득이 약 8.4% 증가하는데 이는 이번 연구에서 참고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Chen, 2013)와 비교하였을 때 세 배 강한 효과이다. 반면, 사업가로서의 경력이 1년 증가할 때 재창업 후 초기 성과는 10% 유의 수준에서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그 영향이 현저히 작지만 음의 효과를 가진다. NB 역시 음의 영향을 주는데, 그 효과가 미약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 아니다. 이는 Chen(2013)에서 사업경험을 반영하는 모든 변수들이 양의 효과를 가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사업가로서의 경력이 축적이 될수록 재창업 후 성과가 좋지 않은 배경은 향후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는 그 효과가 미약하지만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한 살 어릴 때 재창업을 하면 첫 소득이 0.5% ~ 0.7% 가량 증가한다. 재창업 경향과는 달리 경기침체가 재창업 후의 성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표 3-15〉에 두 분석으로부터는 재창업의 가능성이나 재창업 후 성과에 대한 효과가 창업 경험에 기인한 것인지 사업가의 자질에 기인한 것인지 구분해내기 힘들다. 사업가의 좋은 자질이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한다거나 창업 후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 조건부로짓 회귀분석과 고정효과 회귀분석에서는 창업자 개인 각각의 상수항이 추가되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업가의 선천적 자질의 효과를 제거하였고, 때문에 남아 있는 누적 사업 경험 횟수와 과거 사업성

과의 효과는 순전히 과거의 사업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 3－15〉 연쇄창업 성과 단순회귀분석(OLS) 추정결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S	0.839*** (0.0500)	0.854*** (0.0503)	0.841*** (0.0499)	0.853*** (0.0504)
CYSE		-0.0237* (0.00928)		-0.0205* (0.00965)
NB			-0.0736 (0.0436)	-0.0494 (0.0456)
10분위 가구소득	0.0178 (0.0119)	0.0179 (0.0119)	0.0182 (0.0119)	0.0181 (0.0119)
나이	-0.00732** (0.00275)	-0.00543* (0.00265)	-0.00742** (0.00277)	-0.00576* (0.00270)
성별	-0.0259 (0.0666)	0.00395 (0.0674)	-0.0158 (0.0666)	0.00661 (0.0674)
교육수준	0.0298 (0.0218)	0.0307 (0.0218)	0.0319 (0.0217)	0.0320 (0.0218)
배우자유무	0.0755 (0.0734)	0.0796 (0.0730)	0.0774 (0.0733)	0.0803 (0.0730)
Rec	-0.0360 (0.0504)	-0.00578 (0.0522)	-0.0281 (0.0512)	-0.00465 (0.0523)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Constant	0.749* (0.314)	0.680* (0.306)	0.872** (0.330)	0.773* (0.326)
관측수	441	441	441	441
R ²	0.756	0.759	0.758	0.760
RMSE	0.524	0.520	0.522	0.520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표 3－16〉은 조건부로짓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조건부로짓 모형에서는 응답자별로 그 룹핑을 함으로써 개인특성을 제거하게 되므로 351명으로부터 2310개의 관측치 얻었다. 〈표 3－16〉에서 보듯이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특성인 성별인 경우 추정에서 제외

되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사업 경험의 효과가 사업가 자질을 통제하였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단순 로짓모형에 비해 재창업 가능성에 대해 S 와 NB는 추정계수가 두 배 이상 강해졌다. 예를 들면, 사업경험 변수가 각 하나씩 포함된 모형(1)과 모형(2)에 의하면, S가 1% 상승할 때 승산비(odds ratio)는 0.673 더 증가하였고, NB가 1회 증가할 때 승산비는 무려 2.793이나 증가하였다. CYSE은 그 신뢰수준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연쇄창업 결정요인 조건부로짓모형 추정결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S	1.022** (0.370)		0.932* (0.375)	0.275 (0.606)
CYSE			0.160** (0.0613)	
NB		5.088*** (0.612)		5.068*** (0.625)
10분위 가구소득	-0.0171 (0.0332)	0.0249 (0.0468)	-0.0162 (0.0330)	0.0227 (0.0476)
나이	-0.165*** (0.0230)	-0.806*** (0.0723)	-0.232*** (0.0389)	-0.807*** (0.0720)
성별	.	.	.	.
교육수준	-0.567 (0.315)	-1.500 (0.888)	-0.523 (0.312)	-1.531 (0.895)
배우자유무	-0.361 (0.442)	-0.923 (0.642)	-0.368 (0.445)	-0.924 (0.646)
Rec	0.179 (0.118)	0.000786 (0.141)	0.184 (0.117)	-0.00219 (0.141)
관측수	2310	2310	2310	2310
우도	-649.5	-301.5	-646.1	-301.4
Pseudo R ²	0.0597	0.564	0.0648	0.564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사업 경험을 반영하는 이 세 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은 개인의 능력치를 통제하더라도 기존 사업경험이 이후 재사업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전 사업소득(S), 사업자로서의 경력(CYSE), 창업횟수(NB)의 모든 변수가 확연히 양의 계수값을 가진다는 것은 이전에 사업이 성공적이었음수록 이전에 여러 사업을 창업했음수록 더욱 유용한 경험을 쌓게 되고, 이는 이후의 창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창업을 통한 경험효과를 확인하는 결과이다.

그 외에 특이한 점은 나이가 많은 사업가일수록 재창업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사례와 반대로 젊음수록 재창업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요인으로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 나이의 분포가 달라서일 수도, 사회구조적 원인, 혹은 위험회피에 대한 경향이 달라서 일수도 있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는 경기변동과 가구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자영업자들 간에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연쇄창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적용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표 3-17〉은 각 사업가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여 사업경험이 재창업 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고정효과 회귀분석의 추정결과이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사업경험의 재창업 후 초기 사업성과에 대한 영향이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모형에서 과거 평균사업소득(S)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사업 기간 중 평균 소득이 1% 상승하였을 때 1.25%~1.28% 가량 상승하여 그 효과가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현저하게 큰 것을 알 수 있다. 연쇄창업에서 경험효과의 유의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17〉 연쇄창업 성과 고정효과 회귀분석(fixed-effect OLS) 추정결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S	1.247* (0.586)	1.277* (0.624)	1.243* (0.588)	1.274* (0.621)
CYSE		-0.0699 (0.0533)		-0.0887 (0.0549)
NB			0.0484 (0.125)	0.118 (0.128)
10분위 가구소득	0.0378 (0.0299)	0.0393 (0.0302)	0.0372 (0.0295)	0.0384 (0.0306)
나이	-0.0193 (0.0162)	0.0265 (0.0395)	-0.0303 (0.0386)	0.0121 (0.0461)
성별	.	.	.	.
교육수준	-0.196 (0.171)	-0.206 (0.184)	-0.205 (0.178)	-0.230 (0.193)
배우자유무	0.319 (0.260)	0.345 (0.243)	0.309 (0.264)	0.328 (0.248)
Rec	-0.183 (0.128)	-0.200 (0.128)	-0.180 (0.130)	-0.198 (0.129)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Constant	0.0166 (3.472)	-2.096 (4.713)	0.508 (4.186)	-1.471 (4.926)
관측수	441	441	441	441
R ²	0.409	0.421	0.411	0.428
RMSE	0.220	0.218	0.220	0.217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CYSE는 단순회귀분석에서 10% 유의수준에서 음의 효과가 있었던 반면, 고정효과 회귀 분석에서는 수치적으로 강해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NB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효과에서 양의 효과로 그 영향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들을 단순히 해석하면, 재창업 경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창업을 했던 경험에 있는 사업가가 재창업 후 초기의 성과가 좋고, 한 사업에 특화하여 오랫동안 유지했

음에도 사업을 접거나 업종을 바꿨다면 재창업 초기 성과가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 외 인구학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또한 재창업 후 초기 성과가 경기침체에 대한 영향이 고정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가의 선천적 자질이 재창업 후 초기 성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업가의 사업 경험, 예를 들면, 과거 사업의 평균 소득이나 사업가로서의 경력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단순회귀분석은 통계적으로 일관된 추정(consistent estimate)을 할 수 없는데 내생성을 통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도구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사업가의 선천적 기질을 나타내는 도구변수로써 노동시장에 진입 후 첫 소득(innate)과 자영업을 시작한 해의 나이(FA)를 사용하였다. 노동시장 첫 소득(innate)은 사업소득(S)에 대한 도구변수로, 자영업 첫 나이(FA)는 사업경력(CYSE, NB)에 대한 도구변수로 쓰였다. 모형(1)과 모형(2)는 각각 사업경험을 반영하는 변수로 S와 CYSE를, 모형(3)과(4)는 사업경험을 반영하는 두 변수들 조합을 사용하였는데, 모형(3)에서는 S와 CYSE를 모형(4)에서는 S와 NB를 이용하여 모델을 가정하였다. IV 회귀분석에는 351명으로부터 431개 관측치를 얻어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표 3-18〉은 Limited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LIML)방법으로 내생성을 통제한 후 네 모형들을 추정 결과이다.²³⁾ 예상했던 바와 같이, S는 S를 포함한 모든 모형에서 1% 유의수준으로 강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업경험 변수들 CYSE와 NB는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다.

해석하면, 경험효과와 내생성을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통제하는 경우에도 경험이 이후 창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뚜렷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다. 특히, CYSE, NB 등 창업의 횟수나 유지기간보다 이전 소득을 나타내는 S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이전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가 이후 사업의 성과에 주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3) 일단계 추정결과는 [부록 1]에 수록하였는데, 도구변수로 쓰인 innate과 FA 두 변수 모두 독립변수인 S, CYSE, NB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8〉 연쇄창업 성과 도구변수 회귀분석(IV OLS) 추정결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S	0.702*** (0.0942)		0.713*** (0.0935)	0.717*** (0.0945)
CYSE		-0.00649 (0.0203)	-0.0256 (0.0155)	
NB				-0.247 (0.148)
10분위 가구소득	0.0300* (0.0128)	0.0902*** (0.0154)	0.0307* (0.0126)	0.0306* (0.0128)
나이	-0.00930** (0.00290)	-0.0168*** (0.00392)	-0.00734* (0.00288)	-0.00964** (0.00294)
성별	0.0457 (0.0775)	0.390*** (0.0987)	0.0803 (0.0773)	0.0770 (0.0782)
교육수준	0.0445* (0.0222)	0.118*** (0.0298)	0.0458* (0.0221)	0.0502* (0.0225)
배우자유무	0.0633 (0.0742)	0.0550 (0.111)	0.0673 (0.0735)	0.0695 (0.0744)
Rec	-0.0375 (0.0505)	-0.0350 (0.0781)	-0.00615 (0.0569)	-0.0122 (0.0573)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Constant	1.564** (0.482)	4.665*** (0.293)	1.488** (0.472)	2.052*** (0.531)
관측수	431	431	431	431
R ²	0.745	0.491	0.748	0.738
RMSE	0.521	0.736	0.518	0.528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별표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그 외 인구학적 특성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는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창업 후 초기 사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창업 후 초기 사업성과는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IV OLS분석에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었다.

3. 소결

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쇄창업의 결정요인과 성과가 과거 사업가의 창업 경험에 영향을 받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사업 경험을 반영하는 변수들로는 과거 사업 기간 중의 평균소득(S), 사업가로서 경력 유지 기간(CYSE), 그리고 창업경험수(NB)을 설정하였다. 자영업 외의 취업자나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자로의 진입을 창업이라고 보고 과거에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재창업이라 규정하였다. 자영업을 계속 유지더라도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창업으로 간주하여 재창업이 얼마나 사업경험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변수들간의 단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로짓모형과 OLS를 이용하고, 창업가 개인의 자기선택에 의해 추정의 일치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가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부로짓모델과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도구변수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 사업의 성공경험이 있을수록, 즉 S가 높을수록 재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창업 경험이 많은 사업가 역시 재창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재창업 후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업경험과 창업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런 결과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조건부로짓과 고정효과 회귀분석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타고난 자질을 반영하는 도구변수로 노동시장에 진입 후 첫 소득과 첫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역시 사업 경험, 특히 과거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재창업 후 초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번 노동패널 분석은 연쇄창업의 경험 효과를 뚜렷이 확인시켜 주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 창업자의 자기선택 효과를 통제하고서도 과거의 사업소득이 이후 창업을 결정하거나 재창업 초기의 소득을 높이는데 주효했다는 것은 연쇄창업가를 지원할 정책적 당위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사업에서의 높은 소득이 이후 사업소득을 높인다는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고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어 성공한 연쇄창업가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 벤처기업 설문조사 분석에서 연쇄창업 여부가 재무적, 기술적 성과에 단독 변수로는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노동패널에서 다수 포함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생계형 창업에서 경험의 효과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

다. 혁신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노동패널은 연쇄창업가 표본이 한정적이어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다.

그 외에 분석 과정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하나는 경기침체기가 재창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주었으나, 재창업 후 사업 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나이가 재창업과 그 초기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 두 점 역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커 추후 연쇄창업과 관련한 후속 연구의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4장 델파이분석을 통한 연쇄창업가 지원 정책 방안 도출

이번 장은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연쇄창업가의 특징과 창업생태계에서 역할,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한다. 먼저 첫 번째 절에서는 델파이 분석의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두 번째 절에서는 델파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쇄창업가 지원 정책을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세 번째 절은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델파이 기법은 정확한 지식이 부재한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고 수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연구기법이다. 개인의 의견보다 집단의 의견이 더 우수하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주로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쓰인다(오문향, 2013). 연쇄창업 주제는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국내의 실증적, 이론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탐색적으로 접근하고자 델파이 분석을 수행하게 되었다. 앞장의 정량적 분석과 함께 보완적인 정책 분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델파이 분석에서 얻어지는 핵심 주제어나 항목은 향후 정교한 통계연구나 이론연구의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델파이 분석 설계

이종성(2001)은 델파이 기법에 대하여 목적, 의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면대면 토의방식은 소수 의견 무시, 권위자 의견 편향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델파이 방법은 이를 제거한 일종의 패널식 조사연구방법으로 반복된 절차와 통제된 피드백, 익명조사, 통계적 접근 등 의사소통과정을 구조화시킨다. 델파이 절차에서 토론 참여자는 공개되지 않으며 상호간에 직접적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중심리효과(band-wagon

effect), 권위효과(halo effect) 등을 피할 수 있다.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가 있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시행이 용이하고 간단하여 미래예측, 이해집단의 갈등관계 추정, 다수의견 수렴 및 중재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델파이 분석 절차로 이종성(2001)은 3~4회에 걸친 질문 절차를 소개하였다. 제1회 질문은 추정하거나 해결하려는 연구문제를 전문가 패널이 상호접촉하지 않고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에 응답하도록 하여 일련의 판단을 수집한다. 제2회 질문은 1회 개방형 설문에서 수집한 비체계적인 응답들을 편집하여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만들어 다시 패널들로 하여금 질문의 각 항목의 중요성, 가능성, 예측정도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한다. 제3회 질문은 2회에서 회수한 패널들의 반응에 대하여 집중도와 산포를 산출한 후 집단의 반응과 본인의 반응을 피드백하여 재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에서 벗어난 반응의 경우 그 이유를 적을 수 있도록 한다. 제4회 질문은 3회 반응의 집중도와 산포를 재계산하여 피드백하고 반응을 수집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 델파이 방법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나, 추정하려는 문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유의한 전문가 패널을 선정해야 하며, 절차 반복에 따른 패널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간 제약상 패널의 응답을 수렴시키는 과정은 생략하고 제1회 개방형 질문과 제2회 항목평가 질문으로 수행되었다. 제1회 개방형 질문에서는 연쇄창업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제1회 질문 후 연구진은 응답결과를 요약하고 편집하고 검토하여 제2회 항목평가 설문을 작성하였다. 제2회 항목평가 질문은 추출된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이번 연쇄창업 델파이 패널은 국내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진 전문가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연쇄창업 경험이 있는 창업가 6명, 벤처투자자 3명, 정부의 창업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3명, 중소·벤처기업 연구기관 소속 박사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패널은 두 번의 설문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전화와 대면으로 연구의 성격을 미리 알리고,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설문은 이메일로 수집하였으며, 모든 절차는 2015년 8월~10월 사이에 수행되었다.

제1차 개방형 설문은 연쇄창업의 정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²⁴⁾ “연쇄창업은(공동)창업가가 스스로 창업했던 혹은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했던 창업기업을 정리하거나 퇴사한 이후에 다른 기업(공동)창업하거나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창업기업을 정리한다 함은 폐업, 타사에 매각, 기업공개 등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을 의미”하고,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한다함은 해당 기업의 핵심이사결정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표기하였다. 이에 따라 연쇄창업을 1) 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거나 퇴사하여 얻은 수익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2) 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거나 퇴사하여 얻은 수익으로 다른 창업가에게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3) 창업기업이 실패하여 이를 정리하고 재창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 기업을 동시에 창업하는 포트폴리오형 창업은 배제함을 밝혔다.

개방형 설문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수집하였는데, 연쇄창업의 장단점, 연쇄창업가가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쇄창업 관련 정부정책 평가이다. 연쇄창업의 장단점은 연쇄창업 행위가 창업가 본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물었는데, 성공적으로 정리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로 나누어 질문이 작성되었다. 연쇄창업가가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물었으며, 창업생태계 구성원을 신진창업가, 벤처캐피탈 및 금융기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정부기관 등으로 나누어 이들에게 연쇄창업가가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연쇄창업 관련 정부정책을 간단히 제시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떤 지원방식이 바람직한지를 서술하게 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문항이 9개밖에 되지 않았으나 전문가 패널은 서술형 응답을 통해 많은 핵심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제2차 항목평가 설문지가 작성되었다.²⁵⁾ 설문 분류는 연쇄창업가의 특징(10개 세부 문항), 연쇄창업가의 역할(7개),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10개), 연쇄창업 지원 정책(16개)의 네 가지로 재정리되었다. 제 2차 항목평가 설문의 문항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항목에 따라 여러 전문가의 의견에서 반복적으로 발

24) 델파이 제1차 설문지 전체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하라.

25) 델파이 제2차 설문지 전체 내용은 [부록 3]을 참조하라.

견되는 항목과 일부 전문가의 독특한 의견 항목이 있었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되도록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개방형 설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창업 경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사업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연쇄창업의 큰 특징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전문가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설문하였다.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1) 세무, 회계, 법률, 금융, 특허 등의 일반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2) 수요, 기술, 환경, 경쟁구조 등 분야에 특화된 지식으로 나누었다. 역량은 세 가지로 나누어, 1) 인사, 재무, 마케팅, 리더십 등의 경영능력과 2) 자신과 타인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기술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3) 다른 기업가, 기술 및 경영 전문가,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역량으로 나누었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여러 번의 창업에 따른 연쇄창업가의 심리적, 행태적 특징을 응답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성공했을 경우에는 능력에 대한 자만과 성공에 안주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성향이 있는지를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사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험회피성향을 보일 수 있거나, 실패의 원인을 본인의 안목, 능력, 아이디어와 같은 내부요인보다 거시경제, 거래처 상황, 투자자 등 외부요인에서 찾고 비난하는 귀인오류(attribution errors) 성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항목화하였다.

〈표 4-1〉 전문가 델파이 2차 설문조사 세부 항목

분류		세부항목
연쇄 창업가 특징	지식	창업경험을 통해 세무, 법무 등 업무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창업했던 분야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역량	창업경험을 통해 인사, 재무경영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창업경험을 통해 역량, 시장성, 기술의 객관적 평가 능력이 향상된다.
		창업경험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
	행태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자만한다.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의 성공방식에 안주하여 변화 대응이 느리다.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실패를 두려워하고 위험회피성향을 보인다.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내부 요인보다 외부 요인을 비난하는 성향을 보인다.
		연쇄창업가는 사업 유지보다 창업 후 빠른 폐업·매각을 원한다.

분류		세부항목
연쇄 창업가 역할	긍정적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자신이 얻은 창업 노하우를 전수한다.
		잠재적 창업가들에게 전문가·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창업기업에게 투자한다.
		다른 엔젤이나 벤처캐피탈이 피투자기업을 선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대학 및 연구소의 원천기술과 기초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부정적	성공스토리는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창업의 위험성을 저평가하게 한다. 사업우수성에 비해 너무 많은 벤처캐피탈 자금을 독점한다.
국내 연쇄창업 문제점	경제문제	창업 후 실패했을 때, 연대보증에 의한 문제가 심각하다. 창업 후 실패했을 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창업 후 실패했을 때, 국세체납에 의한 문제가 심각하다. M&A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기존 사업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낙인	창업 후 실패했을 때,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 실패기업인에 대한 페널티가 실제보다 과하게 부과된다.
		창업을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온-오프라인 채널이 부족하다.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려 할 때 세금이 높다.
	미순환	창업을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온-오프라인 채널이 부족하다.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려 할 때 세금이 높다.
	모럴 해저드	재도전 정책을 악용하는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 조언과 투자를 미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부 사취행위가 심각하다.
	연쇄창업 지원정책	창업 경험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개 설한다.
		국세를 파산·면책 대상에 포함한다.
		성실 납부 기간이나 세수기여분에 따라 국세를 경감한다.
		비상장주식교환의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기업매각 후 재투자의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한다.
		전문엔젤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혜택을 강화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TIPS 등 창업지원기관 운영에 연쇄창업가 참여를 확 대한다.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에 실패를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신용회복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한다.
		희생계획 성실 이행시 신용불량을 조기해제한다.
		부실채권 시장을 활성화한다.
		연쇄창업가와 신규 창업가가 팀을 이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창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업실패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패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쇄창업가는 창업생태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개방형으로 수집한 결과, 잠재적 창업가에게 자신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문가나 투자자와 연결해주며, 스스로 창업기업에 투자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응답이 수집되었다. 반면에 잠재적 창업가에게 창업성공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창업위험성을 저평가하게 할 우려와 투자자에게 자주 노출됨에 따라 사업우수성에 비해 너무 많은 투자자금을 독점할 수 있다는 부정적 효과도 제시되었다. 연쇄창업가의 특징과 역할은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매우 그렇지 않음(1)에서 매우 그러함(5)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금융거래 면에서의 어려움이였다. 이에 따라 창업 실패 후 연대보증의 문제, 신용불량의 문제, 국세체납의 문제를 구분하여 항목화하였다. 세 항목은 사업 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관련 부처가 다르고 해결을 위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물었다. 실패에서 기인한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M&A 시장의 부제도 경제적 문제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파생된 사회적 문제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의 문제, 이후에 재창업하려할 때 창업지원이나 자금투자면에서 실패자에 대한 페널티 문제 등을 추가하였다.

사업경험의 생태계 내 환류가 되지 않는 문제로 자금을 재투자할 때의 세금 문제, 창업 경험을 공유할 온-오프라인 채널의 부족함 등이 국내 연쇄창업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창업을 촉진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른 창업가에게 조언과 투자를 미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부 연쇄창업가 혹은 사칭하는 자의 사취행위를 언급한 답변이 여럿 발견되어 모럴해저드 파트로 분류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각각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심각하지 않음(1), 별로 심각하지 않음(2), 보통임(3), 다소 심각함(4), 매우 심각함(5)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쇄창업 지원 정책 파트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정책방안을 나열하였다. 특히,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가하여 정책의 다양성을 높였다. 각각의 정책 방안에 대하여 중요성을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별로 중요하지 않음(2), 보통임(3), 다소 중요함(4), 매우 중요함(5)의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동시에 각 정책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전혀 실현불가능(1), 다소 실현불가능(2),

보통임(3), 그럭저럭 실현가능(4), 매우 실현가능(5)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정책 방안은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지원방안을 평가할 때에는 최근 정부 정책이나 제도의 현황을 설문지에 간략히 소개하여 전문가들이 참고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한다는 정책방안을 평가할 때 최근의 연대보증 개선 현황을 참고자료로 삽입하였고, 창업지원기관 운영에 연쇄창업가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안에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라는 최근 설립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국내 연쇄창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업실패 후의 경제적 어려움이 꼽힌 바와 같이, 정책 방안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부각되었다. 국세를 파산·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성실 납부 기간이나 세수 기여분에 따라 국세를 경감하는 방안,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 신용회복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하거나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시에 신용불량을 조기에 해제하는 방안 등이다. 관련하여 부실채권 시장의 활성화, 일반인 대상 사업실패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패창업가 심리개선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었다.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자금을 회수한 연쇄창업가의 창업생태계 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세제혜택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 방안을 다수 언급하였다. 비상장주식 교환의 세제혜택 확대, 기업매각 후 재투자 세제혜택 확대와 같은 직접적 혜택방안이 있었으며, 전문엔젤제도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TIPS 등과 같은 창업지원기관 운영에 연쇄창업가 참여 확대를 통해 투자자로서의 연쇄창업가가 얻을 수익을 높여주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항목에 대하여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의 점수를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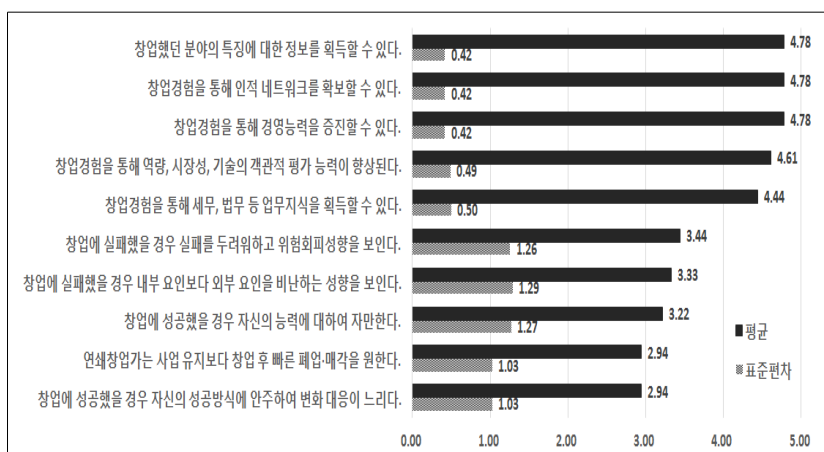
제2절 델파이 분석 결과

이번 절은 전문가 델파이 분석의 제2차 항목평가 설문결과를 정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차 설문은 크게 연쇄창업가의 특징, 연쇄창업가의 역할,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 연쇄창업가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먼저, 연쇄창업가의 특징적 요소를 정리하면 [그림 4-1]과 같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수집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시하고 평균을 대상으로 내림차순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4-1]을 보면 연쇄창업가의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창업했던 분야의 특징에 대한 정보 획득(4.78점), 인적 네트워크의 확보(4.78점), 인사, 마케팅, 조직관리 등 경영능력의 증진(4.78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수위를 차지했다. 특징적인 것은 경영능력, 정보획득, 네트워크 확보는 답변의 표준편차도 제일 낮은 0.42로 모든 전문가들이 고르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실증분석에서 연쇄창업에서 이전 사업분야를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델파이 설문에서도 창업했던 분야의 특정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인적네트워크, 경영능력의 증진 역시 앞서 설문조사에서 공급망 관계에 있는 공급업체, 수요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공동창업이 활발해진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연쇄창업가의 학습효과가 특정지식 확보, 인적네트워크, 조직관리 면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연쇄창업가의 특징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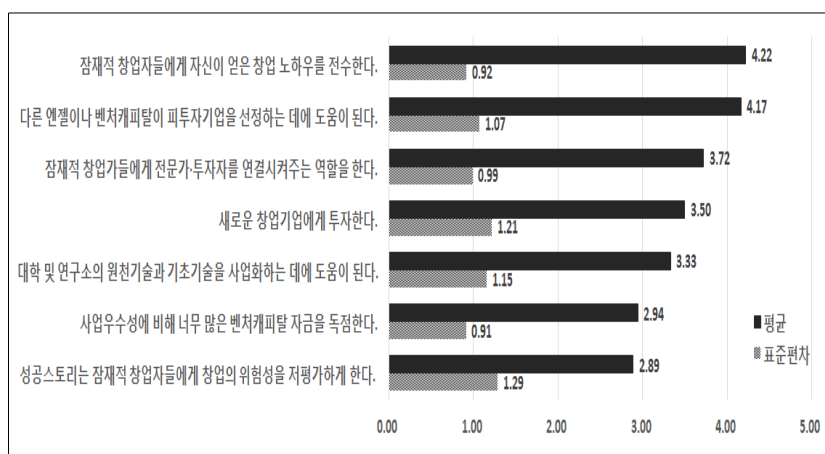


이외에도 본인과 타인의 능력, 제품의 시장성, 기술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능력의 향상(4.61점), 세무, 금융, 법무 등 관련 업무지식의 획득(4.44점) 등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창업경험을 통해 창업가들이 다양한 종류의 역량향상과 지식축적을 경험한다고 보고 있다. 창업의 학습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업실패를 경험한 이후의 위험회피성향(3.44점), 외부요인을 비난하는 귀인요류(3.33점)

는 학습효과 부문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성공 이후에 능력에 대한 자만(3.22점), 성공방식에 안주하여 변화하지 않음(2.94점) 등은 그보다 더 낮았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창업경험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창업경험 후에 발생하는 위험회피, 자만, 변화기피 등의 성향에 대한 전문가 응답의 표준편차가 모두 1.00 이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전문가는 매우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일부는 매우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경험이 창업가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인의 발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연쇄창업가의 창업생태계 역할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5점 척도)



다음으로, 창업생태계 내에서 연쇄창업가의 역할을 [그림 4-2]에 평균의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연쇄창업가는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자신이 얻은 창업의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4.22점), 다른 엔젤이나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 선정에 도움을 주며(4.17점), 잠재적 창업가들에게 경영과 기술의 전문가, 벤처 투자자들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3.72점). 특이한 점은 연쇄창업가의 중요한 특징으로 받아들여지는 재투자 역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인이 직접 새로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역할에 동의한다는 점수

는 3.50점으로 노하우 전수, 네트워크 역할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해당 항목의 표준편차는 1.21로 높게 나타나 채투자 역할은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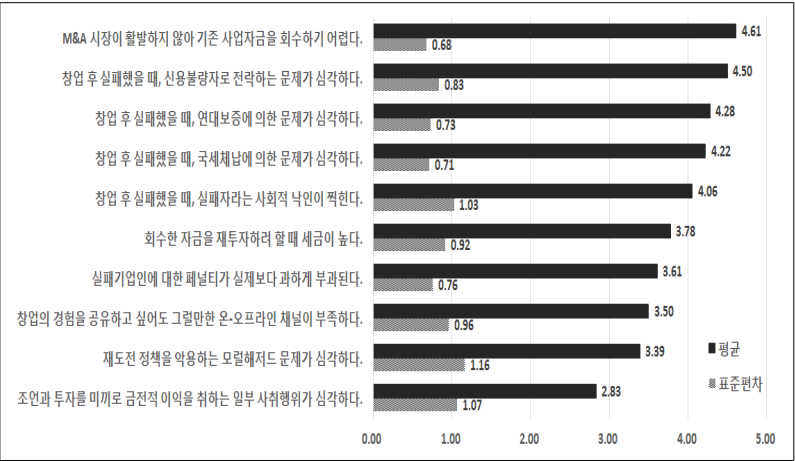
연쇄창업가의 역할 중 부정적인 측면인 사업우수성에 비해 너무 많은 벤처캐피탈 자금을 독점(2.94점)한다거나 성공신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잠재적 창업가들이 창업의 위험성을 저평가(2.89점)하는 등의 부정적인 역할은 앞서 특징적인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하지만 [그림 4-2]의 결과를 [그림 4-1]과 비교하면 [그림 4-2]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쇄창업가가 창업경험을 통해 얻어진 긍정적인(혹은 부정적인) 효과는 학습효과로 축적되어 본인의 이후 창업에 도움이 되는 반면,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쇄창업가가 얻은 경험과 학습을 창업생태계에서 활용하고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세 번째로, 국내 연쇄창업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를 [그림 4-3]에 정리하였다. 다소 심각함(4점)을 넘는 평균점수를 보인 항목은 위축된 M&A 시장(4.61점), 사업실패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전락(4.50점)하거나 연대보증(4.28점), 국세체납(4.22점),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4.06점) 등을 들 수 있다. M&A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사업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4.61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은 실패나 성공에 상관없이 사업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 매각, 합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의 매각이나 처분이 어려워지면 사업이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창업가의 금전적 상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열악한 M&A 환경과 함께 신용불량자, 연대보증, 국세체납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금융환경과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에 관련된 문제가 국내 연쇄창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꼽히고 있다.

채투자자의 높은 세금(3.78점), 창업경험을 공유할 채널의 부족(3.50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앞서의 엄격한 금융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그 심각성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최근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전 정책을 악용하는 모럴해저드 문제(3.39점), 조연과 투자를 미끼로 잠재적 창업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취행위의 문제점(2.83점) 등도 최근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태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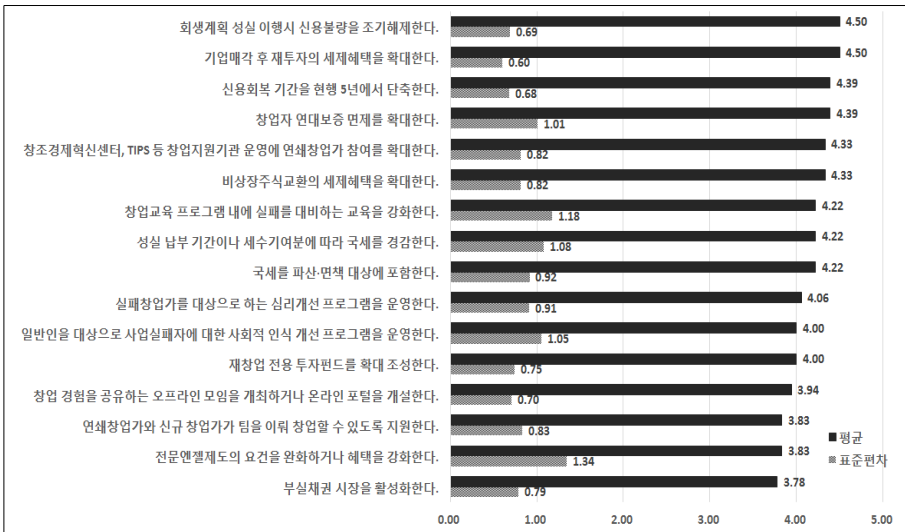
교란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5점 척도)



마지막으로, 연쇄 창업을 지원할 정책방안에 대한 델파이 설문결과로 정책방안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각각 [그림 4-4]와 [그림 4-5]에 표시하였다. [그림 4-4]를 보면 전문가들이 꼽은 정책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의 조기해제(4.50점)와 기업매각 후 재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4.50점)이다. 뒤를 이어 신용회복기간의 단축(4.39점), 연대보증 면제 확대(4.39점), 창업지원기관 운영에 연쇄창업가 운영 확대(4.33점), 비상장주식교환의 세제혜택 확대(4.33점) 등이다.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로 M&A시장 부재에 따른 매각의 어려움, 사업실패후 신용불량, 연대보증 등 금융 애로사항을 뽑았던 만큼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매각 활성화, 신용회복, 연대보증 면제 등이 선순위로 매겨졌다.

[그림 4-4] 연쇄창업 지원 정책 방안의 중요성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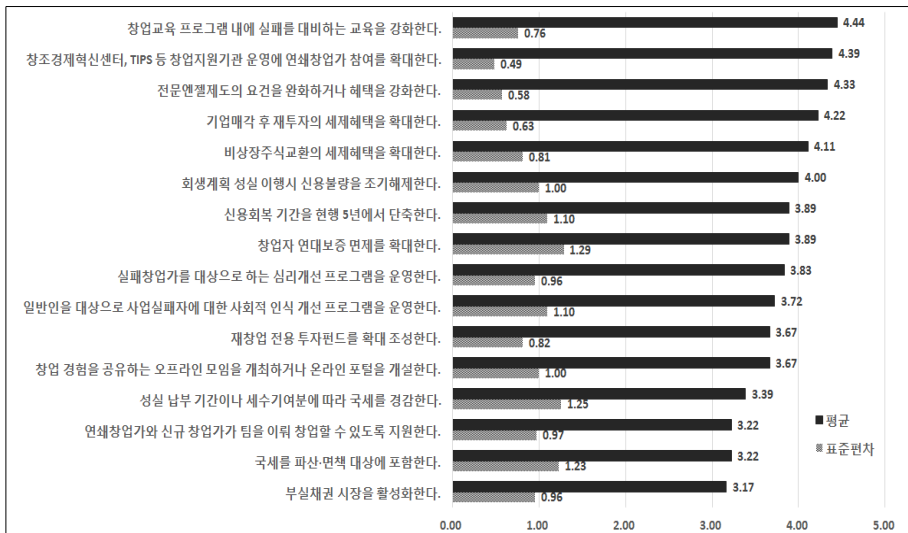


또한, [그림 4-2]에서 연쇄창업가가 신진창업가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문가나 투자자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창업생태계에서 기여한다고 보였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TIPS 등 창업지원기관의 운영에 연쇄창업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정책방안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연쇄창업가의 멘토링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교환 역시 연쇄창업가가 현금이 없더라도 자신이 가진 주식을 활용하여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들이 다른 창업가에게 멘토, 네트워크로 작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교육에 실패를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4.22점)하는 방안과 성실납부기간이나 세수기여분에 따라 국세를 경감(4.22점)하거나 국세를 파산, 면책 대상에 포함(4.22점)시키는 것도 국내 연쇄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방안으로 꼽혔으며, 실패기업인에 대한 심리개선 프로그램 운영(4.06점), 일반인 대상 사업실패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4.00점), 재투자 전용 펀드 조성(4.00점) 등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개선 작업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경험을 공유할 채널의 개설(3.94점), 연쇄창업가와 신규창업가의 동반 창업 지원(3.83점), 전문엔젤제도 강화(3.83점), 부실채권시장 활성화(3.78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정책의 시급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방안의 중요성이 높더라도 실현가능성이 낮으면 정책수단으로써의 활용도는 낮아진다(그림 4-5)는 전문가 패널이 본 연쇄창업 지원 정책 방안의 실현가능성 정도를 5점 척도로 요약한 것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창업교육에 실패를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4.44점). 현재 정부, 기업,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고려해야할 사항, 폐업이나 매각 절차, 신용회복절차, 법률·회계상 주의점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뒤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 TIPS 등 창업지원기관에 연쇄창업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4.39점)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도 연쇄창업가가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로 TIPS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진창업가와 연쇄창업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실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방안은 전문엔젤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4.33점), 기업매각 후 재투자 세제혜택 강화(4.22점), 비상장주식교환의 세제혜택을 확대한다(4.11점), 회생계획 성실 이행시 신용불량을 조기해제한다(4.00점), 신용회복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한다(3.89점),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한다(3.89점), 실패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3.83점),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업실패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3.72점), 재창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한다(3.67점), 창업 경험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개설한다(3.67점), 성실 납부 기간이나 세수기여분에 따라 국세를 경감한다(3.39점), 연쇄창업가와 신규 창업가가 힘을 이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22점), 국세를 파산·면책 대상에 포함한다(3.22점), 부실채권 시장을 활성화한다(3.17점) 등이 있다. 대부분 연쇄창업가가 다른 창업가의 멘토링 역할을 하거나 투자자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5] 연쇄창업 지원 정책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델파이 설문 결과(5점 척도)



중간 수준의 실현가능성으로 회생계획 성실 이행사 신용불량의 조기해제(4.00점), 신용 회복기간의 단축(3.89점), 연대보증 면제 확대(3.89점), 실패사업가 심리개선 프로그램(3.83점), 사업실패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3.72점) 등이 꼽혔다. 앞서 정책의 중요성에서 상위에 랭크되어있었던 금융관련 항목들이 주로 속했는데, 연대보증, 신용불량 관련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고 실현하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국세 경감(3.39점), 국세를 파산·면책 대상에 포함(3.22점) 등이 가장 실현이 어려운 정책방안들로 꼽혔는데, 국세 체납의 문제는 앞서 사업실패에 따른 국내 창업환경의 문제점에 상위 문제였으며 정책의 중요성에서도 중위권에 들었던 것에 비하면 국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창업의 주무부처인 중기청과 미래부 소관이 아닐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설계가 요구되는 분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이며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 3 절 연쇄창업 지원 정책 방안

이번 장에서는 전문가 델파이를 통한 연쇄창업가의 특징과 역할,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쇄창업을 지원할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연쇄창업가는 창업경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상당히 축적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기술, 시장 등 해당 분야에 특징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금융, 법률, 회계 등 경영에 필요한 일반지식도 습득하게 된다. 인사, 마케팅, 조직관리 등 경영능력이 향상되며, 전문가, 투자자들과의 외부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본인과 타인의 능력, 제품의 시장성, 기술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능력도 향상된다.

연쇄창업가의 역량향상과 지식축적은 이후의 본인의 창업 뿐 아니라 창업생태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쇄창업가는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자신이 얻은 창업의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다른 엔젤이나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 선정에 도움을 주며, 잠재적 창업가들과 경영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 벤처 투자자들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연쇄창업가는 창업생태계에서 멘토이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연결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국내 연쇄창업 환경은 위축된 M&A 시장, 사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 연대보증, 국세체납의 문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 등 창업경험을 자산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M&A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사업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 매각, 합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분하기 어려우며, 이는 사업이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정리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창업가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업이 빨리 정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신용불량자, 연대보증, 국세체납 등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꼽은 정책방안 중 중요한 것들로 신용불량의 조기해제, 신용회복 기간의 단축, 연대보증면제 확대 등이 꼽혔다. 뒤를 이어 기업매각 후 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 창업지원기관 운영에 연쇄창업가 운영 확대, 비상장주식교환의 세제혜택 확대 등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로 M&A시장 부재에 따른 매각의 어려움, 사업실패후 신용불량, 연대보증 등 금융 애로사항을 뚫았던 만큼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매각 활성화, 신용회복, 연대보증 면제 등이 선순위로 매겨졌다. 또한, 연쇄창업가의 멘토 혹은 네트워크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의 운영에 연쇄창업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정책방안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행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전문가 패널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 지원 정책 방안은 창업교육에 실패를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현재 정부,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시설에서 진행되는 창업프로그램 내에 실패의 시나리오와 대비 방식을 교육과정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신호를 읽고, 어떤 순서로 폐업이나 매각을 해야하며, 이후 창업가의 신용회복절차는 어떠한지, 절차상 법률·회계상의 주의점은 무엇인지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실패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고 교재를 제작하여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뒤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 TIPS 등 창업지원기관에 연쇄창업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연쇄창업가가 다른 창업가의 멘토링 역할을 하거나 투자자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의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중요성과 실행가능성 두 가지를 동일한 가중치로 합산했을 때, 높은 순위의 정책방안을 다섯 가지만 선택하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기업매각 후 채투자 세제혜택의 확대가 가장 높은 순위를 받았는데, 채투자를 통한 연쇄창업가의 창업생태계 선순환

역할을 중요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조세특례법 제46조의8에 의해 벤처기업을 매각하고 대금 중 80% 이상을 재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과 같은 혜택이 법제화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조세특례는 2018년말에 일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매각대금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은 연쇄창업 지원 정책 방안

순위	세부항목
1	기업매각 후 재투자자의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2	창조경제혁신센터, TIPS 등 창업지원기관 운영에 연쇄창업가 참여를 확대한다.
3	희생계획 성실 이행시 신용불량을 조기해제한다.
4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에 실패를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5	신용회복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한다.

두 번째 정책방안으로는 중요성과 실현가능성 모두에서 꾸준히 상위리스트에 나타났던 창업지원기관에 연쇄창업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현재도 창업보육기관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로 연쇄창업가의 참여가 존재하는데, 특히 TIPS 프로그램과 같이 정부가 R&D 및 창업자금으로 5억원 이상을 제공하고, 엔젤투자사는 멘토링을 제공하는 구조가 호응을 얻고 있다. 투자사는 1억원 내외로 지분을 투자하지만, 투자액보다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투자사는 멘토링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 역시 일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투자사의 스크리닝을 거친 창업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과 멘토링이 함께 공급되어 창업기업의 성과 향상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셋째와 다섯째로 꼽힌 정책방안은 신용회복과 관련된 항목이다. 비록 국세와 관련된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신용불량의 해제는 개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불량자의 성실한 회생노력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일괄적인 5년의 회복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재기지원 및 연대보증면제 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채무감면 폭을 75%까지 확대하고,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신용등급을 신속하게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관계기관합동 보도자료, 2015. 10. 14). 또한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이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 11. 4). 연쇄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용불량과 연대보증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동시에 판단하여 네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방안은 실패 대비 교육의 강화이다. 앞서 실현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창업자들에게 창업 뿐만 아니라 사업마무리 단계의 정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 절차를 제시하고 각종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의 실패를 연구하고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연쇄창업을 다룬 실증적, 이론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델파이 분석은 연쇄창업에 관련된 문제와 해결방안을 탐색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연쇄창업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으로 신용불량의 조기해제, 기업매각 후 재투자세제혜택 확대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창업교육에서 실패 대비 프로그램의 강화, 창업지원기관에 연쇄창업가의 참여 확대 등은 정책적 중요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실현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델파이 분석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앞서 실증분석에서 연쇄창업가가 사업분야를 유지하면서 공동창업했을 때의 성과가 높았던 결과에 착안하여 공동창업 프로그램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특정 분야의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노하우를 공유하여 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창업의 위험을 분산하고 창업경험을 내재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공동창업 프로그램은 앞서 정책방안과 달리 제도의 개선 없이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가진다.

제5장 결 론

이번 연구는 창업생태계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쇄창업가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생태계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연쇄창업가의 사례와 관련 정책현황을 살펴보았다. 창업에 실패하여 발생하는 높은 실패비용(cost of failure)은 창업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주기에서 ‘재도전/재투자’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이미 창업생태계에서 성공 혹은 실패를 경험한 연쇄창업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원활한 재도전 환경 구축과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벤처창업 이후 다른 기업 또는 기업가에게 육성을 맡기거나 인수시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연쇄창업가가 상당수 존재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본엔젤스의 장병규 대표, 패스트트랙아시아의 노정석 대표 등 최근 들어 일부 성공사례가 등장하고 있지만,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부는 연쇄창업 활성화에 유인을 제공하는 ‘재도전 지원제도’와 ‘재투자 지원제도’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연대보증 면제 확대, 제납 및 채무감면 지원, 자금지원, 회생절차 완화, 인프라 조성 등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쇄창업가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은 재투자 지원보다는 재도전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3장은 연쇄창업 관련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창업초기의 ICT 벤처기업을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쇄창업의 현황, 신진창업과의 경영행태 차이, 성과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총 300개 표본 중에서 창업자가 이전에 창업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56개로 약 18.67%의 벤처기업이 연쇄창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의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창업활동년수는 평균적으로 약 8년이었으며, 연쇄창업 중 약 80%는 같은 업종에서 재창업하였으나 나머지 20%는 업종을 변경하였다. 연쇄창업가 중 IPO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무하였고, 2개(3.6%) 기업이 기업매각,

12개(21.4%) 기업이 폐업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회수시장이라고 알려진 IPO, M&A가 국내에서 활발하지 않으며, 연쇄창업가들이 기존 창업에서 퇴출이나 회수과정을 명확하게 거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영행태 및 성과와 관련된 결과를 종합하면, 연쇄창업의 경우에는 기술보다 시장과 수익에 더 중점을 두어 창업한다고 볼 수 있다. 큰 자산규모로 시장에 진입하고, 주력시장을 확대하며, 대량생산 전략을 취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보다 판로개척 면에서 지원을 받는 등 시장성 위주의 경영전략행태를 보인다. 이에 따라 연쇄창업은 특허와 같은 기술적 성과보다는 재무적 성과에 더 큰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여러 명이 공동창업하고, 창업자 지분을 높이며, 내부 역량에 집중할 뿐 아니라 정부협력은 줄이되 원자재 공급업체, 주요업체 등 공급망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지난 창업 경험을 통해 경영역량을 향상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쇄창업가는 축적된 경영역량을 활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이는 공동창업으로 이어지며 재무성과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기존 경험과 노하우는 특정 영역에 한정하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쇄창업이 성과를 보이기 어렵다.

설문조사를 통해 연쇄창업의 특징과 성과를 살펴보았으나, 일회성 설문조사는 내생성 문제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쇄창업에서의 내생성 문제는 창업자의 자기선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경영역량을 타고난 개인이 창업을 반복하면서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 경험효과와 자기선택효과를 일회성 단면조사로는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연쇄창업이 경험누적을 통한 성장과정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일 뿐이라면, 사업경험을 벤처생태계에 자산화하고 순환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당위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창업경험이 개인의 자기선택효과보다 유의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실증분석으로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쇄창업의 결정요인과 성과가 과거 사업가의 창업 경험에 영향을 받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사업 경험을 반영하는 변수들로는 과거 사업 기간 중의 평균소득, 사업가로서 경력 유지 기간, 그리고 창업경험수를 설정하였다. 자영업 외의 취업자나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자로의 진입을 창업이라고 보고 과거에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재창업이라 규정하였다. 자영업을 계속 유지더라도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창업으로 간주하여 재창업이 얼마나 사업경험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변수들간의 단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로짓모형과

OLS를 이용하고, 창업가 개인의 자기선택에 의해 추정의 일치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가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부로짓모델과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도구변수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 사업의 성공경험이 있을수록, 즉 과거 사업 기간 중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재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창업 경험이 많은 사업가 역시 재창업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재창업 후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업경험과 창업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런 결과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조건부로짓과 고정효과 회귀분석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타고난 자질을 반영하는 도구변수로 노동시장에 진입 후 첫 소득과 첫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역시 사업 경험, 특히 과거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재창업 후 초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번 노동패널 분석은 연쇄창업의 경험 효과를 뚜렷이 확인시켜주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 창업자의 자기선택 효과를 통제하고서도 과거의 사업소득이 이후 창업을 결정하거나 재창업 초기의 소득을 높이는데 주효했다는 것은 연쇄창업가를 지원할 정책적 당위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소득을 얻은 사업이 유용한 성공의 경험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장은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연쇄창업가의 특징과 창업생태계에서 역할,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델파이 설문은 제1차 개방형 설문과 제2차 항목평가형 설문으로 시행되었다. 개방형 설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창업 경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사업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연쇄창업의 큰 특징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식은 세무, 회계, 법률, 금융, 특허 등의 일반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수요, 기술, 환경, 경쟁구조, 산업특징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지식으로 나눌 수 있었고, 역량은 세 가지로 나누어, 인사, 재무, 마케팅, 리더십 등의 경영능력과 자신과 타인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기술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기업가, 기술 및 경영 전문가,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역량이 꼽혔다. 연쇄창업가는 창업생태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개방형으로 수집한 결과, 잠재적 창업가에게 자신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문가나 투자자와 연결해주며, 스스로 창업기업에 투자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응답이 수집되었다.

전문가 델파이 설문에서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금융거래 면에서의 어려움이었다. 실패에서 기인한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M&A 시장의 부재, 자금을 재투자할 때의 세금 문제, 창업 경험을 공유할 온-오프라인 채널의 부족함 등이 국내 연쇄창업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내 연쇄창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업실패 후의 경제적 어려움이 꼽힌 바와 같이, 정책 방안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부각되었다. 국세를 파산·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성실 납부 기간이나 세수 기여분에 따라 국세를 경감하는 방안,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 신용회복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하거나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시에 신용불량을 조기에 해제하는 방안 등이다. 관련하여 부실채권 시장의 활성화, 일반인 대상 사업실패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패창업가 심리개선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었다.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자금을 회수한 연쇄창업가의 창업생태계 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세제혜택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 방안을 다수 언급하였다. 비상장주식 교환의 세제혜택 확대, 기업매각 후 재투자 세제혜택 확대와 같은 직접적 혜택방안이 있었으며, 전문엔젤제도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TIPS 등과 같은 창업지원기관 운영에 연쇄창업가 참여 확대를 통해 투자자로서의 연쇄창업가가 얻을 수익을 높여주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항목에 대하여 정책방안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의 점수를 수집하였다. 정책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 두 가지를 동일한 가중치로 합산하고 높은 순위의 정책방안 다섯 가지를 선택한 결과, 1) 기업매각 후 재투자의 세제혜택 확대, 2) 창업지원기관 운영에 연쇄창업가 참여 확대, 3) 회생계획 성실 이행시 신용불량 조기 해제, 4)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에 실패 대비 교육 강화, 5) 신용회복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이 꼽혔다.

국내 창업생태계의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연쇄창업가의 지속적인 재도전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적·제도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 미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식 등 기업가정신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및 민간의 창업 인프라 조성 노력으로 창업 환경에 관한 객관적 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GEM(2013)에 따르면, 기업가의 창업 인식(perceived opportunities), 역량(perceived capabilities)에서 각각 12.7%, 28.1%로 아시아

평균(34.2%, 39.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fear of failure) 인식도 42.2%로 아시아 평균 대비(4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실제로 많은 실패기업인들이 스스로 인생을 실패하였다고 생각하여 의욕상실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창업 활동에서 도전적인 정신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제도전을 통한 연쇄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실패한 창업자는 연대보증 책임에 따른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당좌예금 개설금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금지,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 취업 제약, 비자 발급 제약 등 경제활동에 있어 큰 제약이 따른다. 특히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인해 대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다만 연대보증 문제는 면제대상 확대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중진공의 면제대상자 확대('13년) 및 신·기보의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14년)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창업 5년 이하의 초기성장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5. 11. 4).

셋째, 창업가들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위험 인식이 부재하여 빠른 결정을 통한 신속한 폐업이 어렵고, 이로 인해 재창업에 도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창업 교육의 대부분이 초기 창업 과정에 관한 내용이어서 폐업 혹은 제도전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파산면책 제도나 신용회복 절차를 할 수 없어 재창업하기 까지 시간이 지체되며, 면책 확정 및 신용회복 확정 이후에도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기까지 절차상 각각 5년 및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넷째, 사업 실패 시 발생하는 체납 국세는 파산 및 면책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이다. 특히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증가산금(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6) 이 밖에 2013년 GEDI Index 순위에서도 기업가 태도, 능력, 열망에 관하여 각각 36위, 59위, 33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다(국제징수법 제21조 내지 23조, 국제기본법 제2조, 제38조 내지 41조). 현재 ‘재창업 자금을 용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3년간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을 수 있는데, 유예기간을 확장시켜 주거나 폐업 당시 국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국세부담을 더욱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매각한 이후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즉, 성공한 창업가에게 있어 재투자자의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용 이상을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80% 이상을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8조). 하지만 이는 ‘양도 대금 중 80% 이상을 양도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등 한정적인 요건 하에 지원된다. 또한 ‘타인의 출자지분, 투자지분 및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한 이후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 이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재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패한 창업가들의 재기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높여 성공한 창업가들이 창업생태계에 환류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연쇄창업 관련 국내 연구가 희박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연쇄창업을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정책지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쇄창업을 정의하였다. “연쇄창업은(공동)창업가가 스스로 창업했던 혹은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했던 창업기업을 정리하거나 퇴사한 이후에 다른 기업을(공동)창업하거나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연쇄창업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연쇄창업을의 행태와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사업경험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인역량을 통제하는 기법,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탐색적인 델파이 기법을 소개하고 실제 적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국내 창업생태계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내 ICT 벤처기업 연쇄창업의 현황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연쇄창업의 성과는 공동창업하거나 업종을 유지하는 등의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며 그 효과는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수 있음

을 보였다. 혁신형과 생계형이 모두 포함된 일반 창업의 경우에도 노동패널을 통해 사업 경험, 특히 성공적인 사업경험이 이후 연쇄창업의 결정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정부정책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델파이 연구를 통해 연쇄창업과 관련된 핵심어를 추출하여, 향후 연쇄창업을 분석할 때 파악해야 하는 전반적인 뼈대를 제시했다.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 역량,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연쇄창업에서 기인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나 문제점을 함께 수집하여 연쇄창업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였다. 이번 연구가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연쇄창업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연구를 촉진하며, 정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3. 10. 30), “전주기적 제도적 친화적 생태계 만들기 추진”.
_____(2015. 10. 14),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1. 4), “중소기업 「新 보증체계」 구축”.
- 김인수(2015), “효율적인 제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 《과학기술정책지》, 203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7.
- 나성현·조유리·강유리·정원준(2014), 『벤처·창업 정책 성과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12.
- 배영임(2014), “재창업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3호, 2014. 6.
- 백 훈(2012), 『역대 벤처기업 육성정책 비교 연구』, 기본연구 12-18, 중소기업연구원.
- 백필규(2011),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제도전 활성화 방안 연구』, 기본연구 11-13, 중소기업연구원, 2011. 12.
- 양태용 외(2015), 『KAIST V-Cycle Education』, 미래창조과학부·(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KAIST기업가정신연구센터, 2015. 6.
- 오문향(2013), “텔파이 기법과 AHP를 활용한 국가 간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상호·성재민·신선옥·이지은·윤미례·이혜정·박진(2014), 『제15차(201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연구원, 2014. 10.
- 이재호 외(2014),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정리를 통한 제도전 패스트트랙 구축』, 기본연구 14-06, 중소기업연구원, 2014. 12.
- 이종성(2001), 『텔파이 방법』,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론 총서 시리즈 - 연구방법 21』, 교육과학사.

조유리·강유리·김홍식(2014), 『ICT 중소기업의 M&A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대기업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12.

조유리·나성현·강유리(2015), 『ICT 벤처기업 생애주기 추적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11.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2014), 『201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4. 11.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4. 9. 26), “걸어 다니는 벤처확인 기관, 전문엔젤 1호 탄생!”.

《중앙일보》(2015. 1. 8), “해외에 길 있다 … 대치동 강사, 뉴욕학교서 ‘수학애플’ 팔아”.

《한겨레》(2009. 6. 24), “창업보다 재창업 성공률 높은데”.

벤처인 홈페이지: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data/C61100.do>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www.kli.re.kr/klips>

[해외 문헌]

Anokhin, S., Grichnik, D., & Hisrich, R. D.(2008), “The journey from novice to serial entrepreneurship in China and Germany: Are the Drivers the Same?,” *Managing Global Transition*, Vol. 6, pp.117~142.

Carter, S., & Ram, M.(2003), “Reassessing portfolio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1(4), pp.371~380.

Chen, J.(2013), “Selection and serial entrepreneurs”,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Vol. 22, pp.281~311.

Delmar F., & Shane, S.(2006), “Does experience matter? The effect of founding team experience on the survival and sales of newly founded ventures”, *Strategic Organization* 4(3), pp.215~247.

Dow Jones(2014), *Dow Jones Venture Source 2014*.

Eggers, J. P. & Song, Lin(2013), “Serial entrepreneurs, venture failure, and challenges to learning,” *working paper*.

GEM(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3 Global Report*.

Gompers, P. A., Kovner, A., Lerner, J. & Scharfstein, D. S.(2008), “Performance Persistence in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09-028, pp.1~33.

- Gompers, P., Kovner, A., Lerner, J., & Scharfstein, D.(2010), "Performance persistence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96, pp.18~32.
- Iacobucci, D., Dago, P. M., & Rosa, P.(2004), "Habitual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team development and business group formation", *Paper presented at "RENT XVIII – Managing Complexity and Change in SMEs"*, Copenhagen Denmark.
- Li, S., Schulze, W., & Li, Z.(2009), "Plunging into the sea, again? A study of serial entrepreneurship in China",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Vol. 26, pp.667~680.
- Madsen, P. M., & Desai, V.(2010), "Failing to Learn? The Effects of Failure and Success on Organizational Learning in the Global Orbital Launch Vehicle Indust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1), pp.13~30.
- Parker, S. C.(2013), "Do serial entrepreneurs run successively better-performing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8, pp.652~666.
- Rocha, V., Carneiro, A., & Varum, C. A.(2013), "Serial entrepreneurship, learning by doing and self-selection", *cef.up working paper*, 2013-12.
- Shepherd, D. A., McMullen, J. S., & Jennings, P. D.(2007), "The Formation of Opportunity Beliefs: Overcoming Ignorance and Reducing Doubt",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1-2), pp.75-95.
- Shepherd, D. A., Wiklund, J. & Haynie, J. M.(2009), "Moving forward: Balancing the financial and emotional costs of business fail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 pp.134~148.
- Stuart, R. W., & Abetti, P. A.(1990), "Impact of entrepreneurial and management experience on early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3), pp.151~162.
- Ucbasaran, D., Westhead, P., Wright, M., & Flores, M.(2010), "The natur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business failure and comparative optimis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5, pp.541~555.
- Vanacker, T., Manigart, S., Meuleman, M., & Sels, L.(2015), "A longitudi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bootstrapping and new venture growth",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Vol. 23, pp.681~705.

WEF(2015), *Doing Business* 2015.

Westhead, P., Ucbasaran, D., & Wright, M.(2003), "Differences Between Private Firms Owned by Novice, Serial and Portfolio Entrepreneurs: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Regional Studies*, 37(2), pp.187~200.

Westhead, P., Ucbasaran, D., Wright, M., & Binks, M.(2005), "Novice, serial and portfolio entrepreneur behavior and contribution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25, pp. 109~132.

Zhang, J.(2011), "The advantage of experienced start-up founders in venture capital acquisition: evidence from serial entrepreneur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36, pp.187~208.

<https://research.stlouisfed.org/fred2/series/KORRECD>

[부록 1] 〈표 3-18〉의 도구변수 회귀분석에서 일단계 추정 결과

모형(1) S	Coef.	RobustSE	t	P> t	95% CI	
h_incomeq	0.051	0.013	4.050	0.000	0.026	0.075
p_age	-0.010	0.003	-2.850	0.005	-0.017	-0.003
p_sex	0.214	0.086	2.470	0.014	0.044	0.383
p_edu	0.080	0.025	3.170	0.002	0.030	0.130
p_married	-0.048	0.093	-0.510	0.608	-0.230	0.135
Rec	-0.039	0.062	-0.620	0.537	-0.161	0.084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nate	0.506	0.054	9.420	0.000	0.400	0.611
_cons	2.456	0.301	8.170	0.000	1.865	3.047

모형(2)CYSE	Coef.	RobustSE	t	P> t	95% CI	
h_incomeq	0.017	0.042	0.400	0.687	-0.066	0.101
p_age	0.563	0.041	13.570	0.000	0.481	0.645
p_sex	1.228	0.243	5.050	0.000	0.750	1.706
p_edu	-0.042	0.095	-0.440	0.660	-0.229	0.145
p_married	0.438	0.322	1.360	0.175	-0.196	1.072
Rec	0.157	0.221	0.710	0.479	-0.278	0.591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A	-0.546	0.041	-13.250	0.000	-0.627	-0.465
_cons	-0.888	0.864	-1.030	0.305	-2.586	0.810

모형(3), (4) S	Coef.	RobustSE	t	P> t	95% CI	
h_incomeq	0.049	0.012	3.940	0.000	0.025	0.074
p_age	0.005	0.009	0.550	0.581	-0.012	0.022
p_sex	0.203	0.085	2.390	0.017	0.036	0.369
p_edu	0.076	0.025	3.020	0.003	0.027	0.126
p_married	-0.039	0.093	-0.420	0.673	-0.222	0.144
Rec	-0.071	0.062	-1.140	0.255	-0.193	0.051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nate	0.507	0.053	9.590	0.000	0.403	0.611
FA	-0.016	0.008	-1.960	0.051	-0.033	0.000
_cons	2.454	0.299	8.210	0.000	1.867	3.041

모형(3)CYSE	Coef.	RobustSE	t	P> t	95% CI	
h_incomeq	-0.002	0.044	-0.040	0.969	-0.087	0.084
p_age	0.565	0.041	13.670	0.000	0.483	0.646
p_sex	1.085	0.271	4.000	0.000	0.552	1.618
p_edu	-0.055	0.097	-0.560	0.573	-0.245	0.136
p_married	0.419	0.323	1.300	0.195	-0.216	1.055
Rec	0.138	0.222	0.620	0.534	-0.299	0.575
industry dummies	-0.271	0.544	-0.500	0.619	-1.340	0.798
innate	0.275	0.199	1.380	0.168	-0.117	0.666
FA	-0.547	0.041	-13.350	0.000	-0.627	-0.466
_cons	-1.959	1.095	-1.790	0.074	-4.112	0.194

모형(4) NB	Coef.	RobustSE	t	P> t	95% CI	
h_incomeq	0.000	0.014	-0.010	0.995	-0.028	0.028
p_age	0.049	0.011	4.640	0.000	0.028	0.070
p_sex	0.102	0.066	1.540	0.123	-0.028	0.233
p_edu	0.014	0.030	0.450	0.650	-0.045	0.072
p_married	0.051	0.073	0.710	0.480	-0.092	0.194
Rec	-0.011	0.065	-0.170	0.862	-0.139	0.116
industry dummies	-0.075	0.197	-0.380	0.703	-0.463	0.313
innate	0.037	0.059	0.630	0.527	-0.078	0.153
FA	-0.057	0.012	-4.740	0.000	-0.081	-0.033
_cons	2.123	0.387	5.490	0.000	1.363	2.883

연쇄창업 관련 델파이조사 1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수탁과제인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연쇄창업가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연쇄창업가의 역할과 정부지원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연쇄창업가, 벤처투자자, 연구원,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차 설문에서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방식'으로 조사한 후, 2차 설문에서는 1차 설문에서 수집한 개방형 응답들을 정리하여 '항목별 중요도 평가 방식'으로 조사가 수행됩니다.

본 조사는 연쇄창업가의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평소 가지고 계신 고견에 따라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유리 부연구위원
연락처: yurijo@kisdi.re.kr, 043-531-4281

☐ 실무담당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원준 연구원
연락처: visix@kisdi.re.kr, 043-531-4009

■ 응답자 성명:

■ 소속기관/직위:

■ 이메일 주소:

■ 회사 전화번호: () -

■ 핸드폰 전화번호: () -

■ 해당업무 경력 년수:

※ 응답자 작성 부분

■ 연쇄창업의 장단점

연쇄창업 개념

연쇄창업(serial entrepreneurship)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연쇄창업은(공동)창업가가 스스로 창업했던 혹은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했던 창업기업을 정리*하거나 퇴사한 이후에 다른 기업(공동)창업하거나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창업기업을 정리한다' 함은 폐업, 타사에 매각, 기업공개 등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을 의미

** '상당한 수의 지분을 보유한다' 함은 해당 기업의 핵심의사결정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

■ 이에 따라 연쇄창업은 크게

- 1) 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거나 퇴사하여 얻은 수익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 2) 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거나 퇴사하여 얻은 수익으로 다른 창업가에게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 3) 창업기업이 실패하여 이를 정리하고 재창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기업을 동시에 창업하는 포트폴리오형 창업은 배제)

다음의 질문은 창업경험이 연쇄창업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하여 자유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자유롭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 1) 창업경험이 이후의 창업과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2) 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하여(타사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기업을 공개하는 등) 수익을 창출한 창업가가 이후에 재창업하거나 다른 창업기업에게 지분을 투자할 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재창업이나 재투자시에 사회적인 혹은 제도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문 3) 창업기업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를 정리하고 재창업할 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재창업시의 사회적인 혹은 제도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연쇄창업가가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질문은 창업경험을 가진 연쇄창업가가 창업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자유롭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 4) 여러 번 창업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연쇄창업가가 창업생태계 전반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눠서 적어주십시오.

문 5) 연쇄창업가가 다음의 창업생태계 구성원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눠서 적어주십시오.

1) 생애 첫 창업하는 창업가(novice entrepreneurs)

--

2) 벤처캐피탈 및 금융기관

--

3) 연구개발을 하는 대학, 연구소 등

--

4) 정부기관(중앙부처, 중소기업청 등)

--

5) 기타

--

문 6) 연쇄창업가가 창업생태계나 그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연쇄창업 관련 정부정책 평가

정부정책 현황

이하에서는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기 수행중인 연쇄창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기타
재도전 교육지원	재창업 전용 R&D 지원	성장사다리펀드 내 재기펀드 확대	회생절차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감축(법무부)
재도전 Comeback 캠프 운영	실패기업인 재창업 자금지원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 활성화	재기중소기업인 과세특례/기업 매각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신설(기획재정부)
재도전 전용 R&D 지원	중소기업 회생 건설당사업	은행권·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확대 및 채무감면 지원	재창업재기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재도전 인식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성실실패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회생 수행계획 성실 이행 등 충족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다음의 질문은 연쇄창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 7) 창업 성공 후 재창업 혹은 재투자와 관련된 정부정책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문 8) 창업 실패 후 재창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문 9) 정부가 연쇄창업가의 재창업이나 재투자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합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쁘신 중에도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이 되겠습니다.

■ 연쇄창업 관련 델파이조사 2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수탁과제인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연쇄창업가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연쇄창업가의 역할과 정부지원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연쇄창업가, 벤처투자자, 연구원,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차 설문에서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방식’으로 조사한 후, 2차 설문에서는 1차 설문에서 수집한 개방형 응답들을 정리하여 ‘항목별 중요도 평가 방식’으로 조사가 수행됩니다.

본 조사는 연쇄창업가의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평소 가지고 계신 고견에 따라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유리 부연구위원
연락처: yurijo@kisdi.re.kr, 043-531-4281

☐ 실무담당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원준 연구원
연락처: visix@kisdi.re.kr, 043-531-4009

■ 응답자 성명:

■ 소속기관/직위:

■ 이메일 주소:

■ 회사 전화번호: () -

■ 핸드폰 전화번호: () -

■ 해당업무 경력 년수:

■ 연쇄창업가의 특징

다음은 1차 설문에서 얻어진 연쇄창업가의 특징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의견인지**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작성 요령				
답안지에서 3번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 기호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	④	⑤

1. 창업경험을 통해 인사, 재무, 마케팅, 리더십 등의 경영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2. 창업경험을 통해 세무·회계, 법률, 금융, 특허 등의 업무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3. 창업경험을 통해 다른 기업가, 기술 및 경영 전문가,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4. 창업했던 분야의 수요, 기술, 환경, 경쟁구조, 산업특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5. 창업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기술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6.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자만한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7.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의 성공방식에 안주하여 변화 대응이 느리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8.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실패를 두려워하고 위험회피성향을 보인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9.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내부 요인(본인의 안목, 능력, 아이디어 등)보다 외부 요인(거시경제, 거래처 상황, 투자자 등)을 비난하는 성향을 보인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10. 연쇄창업가는 사업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보다 창업 후 빠른 폐업·매각을 원한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추가> 위의 항목에서 다루지 못한 연쇄창업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기술해주시요.

■ 연쇄창업가의 역할

다음은 1차 설문에서 얻어진 연쇄창업가의 창업생태계 내 역할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의견인지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쇄창업가는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자신이 얻은 창업 노하우를 전수한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2. 연쇄창업가의 성공스토리는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창업의 위험성을 저평가하게 한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3. 연쇄창업가는 잠재적 창업가들에게 전문가·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4. 연쇄창업가는 새로운 창업기업에게 투자한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5. 연쇄창업가는 다른 엔젤이나 벤처캐피탈이 피투자기업을 선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6. 연쇄창업가는 사업우수성에 비해 너무 많은 벤처캐피탈 자금을 독점한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7. 연쇄창업가는 대학 및 연구소의 원천기술과 기초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매우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모르겠음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추가> 위의 항목에서 다루지 못한 연쇄창업가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기술해주세요.

■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

다음은 1차 설문에서 얻어진 연쇄창업 관련 국내 문제점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 후 실패했을 때, 연대보증에 의한 문제가 심각하다.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2. 창업 후 실패했을 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3. 창업 후 실패했을 때, 국세채납에 의한 문제가 심각하다.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4. 창업 후 실패했을 때,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짝힌다.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5. 창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온-오프라인 채널이 부족하다.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6. 제도전 정책을 악용하는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7. M&A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기존 사업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8.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려 할 때 세금이 높다.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창업가에게 조언과 투자를 미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부 연쇄창업가(실제 혹은 사칭)의 사취행위가 심각하다.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10. 창업지원 및 자금투자 면에서 실패기업인에 대한 패널티가 실제보다 과하게 부과된다.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①	②	③	④	⑤

<추가> 위의 항목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면, 기술해주시요.

■ 연쇄창업 지원 정책

다음은 1차 설문에서 얻어진 연쇄창업 지원 정책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 경험을 공유하는 정기적인 상설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개설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2. 국세를 파산·면책 대상에 포함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3. 성실 납부 기간이나 세수기여분에 따라 국세를 경감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4. 비상장주식교환의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①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②	보통임 ③	다소 중요함 ④	매우 중요함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①	다소 실현불가능 ②	보통임 ③	그럭저럭 실현가능 ④	매우 실현가능 ⑤

<참고> 비상장주식교환 과세특례(조세특례법 제46조의7)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주가 전락적 제휴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했을 때,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함(15. 12. 31일까지만 가능)

5. 기업매각 후 채투자의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①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②	보통임 ③	다소 중요함 ④	매우 중요함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①	다소 실현불가능 ②	보통임 ③	그럭저럭 실현가능 ④	매우 실현가능 ⑤

<참고> 채투자 과세특례(조세특례법 제46조의8)
벤처기업을 매각하고 대금 중 80% 이상을 채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함(15. 12. 31일까지만 가능)

6.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①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②	보통임 ③	다소 중요함 ④	매우 중요함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①	다소 실현불가능 ②	보통임 ③	그럭저럭 실현가능 ④	매우 실현가능 ⑤

<참고>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현황

개인대출의 경우 전면 폐지('12~'13년)하였으나 개인사업자·법인대출은 존속, 개인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의 면제대상 확대('13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우수 기술창업기업 면제 신설('14년), 소 은행 기·신보 비보증분 면제('14년)

7. 전문엔젤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혜택을 강화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참고> 전문엔젤제도

- 요건: 최근 3년간 신주 또는 지분투자 1억원 이상 투자실적, 상장사 창업자/투자심사 2년 /이공·경상 박사학위/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 이상 충족
- 혜택: 피투자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 매칭펀드 제공

8. 창조경제혁신센터, TIPS 등 창업지원기관 운영에 연쇄창업가 참여를 확대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참고>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자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R&D자금과 창업자금으로 5억원 이상을 제공하고, 엔젤투자사는 멘토링과 함께 1억원 내외의 지분을 투자하되 투자액보다 많은 수의 지분을 확보하여 투자수익을 강화한 프로그램

9.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에 실패를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10. 신용회복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11. 희생계획 성실 이행시 신용불량을 조기해제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12. 부실채권 시장을 활성화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13. 연쇄창업가와 신규 창업가가 팀을 이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14. 재창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15.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업실패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16. 실패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불가능	다소 실현불가능	보통임	그럭저럭 실현가능	매우 실현가능
	①	②	③	④	⑤

<추가> 위의 항목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정책방향이 있다면, 기술해주시시오.

바쁘신 중에도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되겠습니다.

● 저 자 소 개 ●

조 유 리

- 서울대 산업공학 학사
- KAIST 경영공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원 준

- 성균관대 법학 학사
- 고려대 법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고 동 환

- 중앙대 경제학 학사
-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석사
- Rutgers Univ.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46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연쇄창업가
지원방안 연구

(Towards the Virtuous Circle in Start-up Ecosystem
through Supporting Serial Entrepreneur)

2015년 11월 일 인쇄

2015년 11월 일 발행

발행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msip.go.kr

인쇄 인성문화
